

2018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

2018년 9월 15일(토)
9:00-18:00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
새천년관 대강당(1F)



공동주최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후원 (주)학지사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추계학술대회 개회사

존경하는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함께 해 주신 대학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초입인 오늘,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빠르게 보편교육 단계에 도달하였지만 질적 수준과 국제경쟁력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학원은 학부의 발전에 비해, 그리고 선진 외국 대학원에 비해 더 큰 도전에 당면해 있으며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의 고등교육 논의는 제한적 범위에서 정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뿐 교육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학부 수준 교육에 초점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으며 대학교육 뿐 아니라 대학원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과 혁신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제는 시급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대학원 교육 현장에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기회 주제를 필두로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국문 및 영문 학술지의 심사 및 게재 과정에 관한 편집위원장들과의 대화 세션, 춘계 때의 논의를 심화시킬 ‘교육행정연구 워크숍’ 세션, 그리고 신진 학자의 탄생을 공식화하는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3개 세션을 통해 열립니다. 그리고 임시총회 이후 이어질 대학원생, 현직교원, 신진 학자, 소장 학자의 그룹별 네트워킹 모임은 같은 배경을 가진 회원님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실질적인 유익함이 클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관심사에 따라 선택하시고 토론에 적극 참여하심으로써 진정한 학습의 장이 되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임시 총회에서 진행될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시상과 법인화 논의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생님들께 학회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자로서 교육행정의 범위를 넘어 대학원 교육에 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기초 강연을 기꺼이 맡아 주신 민경찬 교수님, 심혈을 기울여 논문을 준비해 주신 박세훈 교수님과 이정미 교수님, 학회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토론, 사회,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 바쁜 일정을 쪼개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님께 심심

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최교의 총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혁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기에 축하의 의미가 큼니다. 저희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앞으로도 학문적 역량과 실천적 전문성을 심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5일

한국교육행정학회장 김혜숙

2018 추계학술대회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김용학 총장입니다. 이번에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학교를 대표하여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육학 분야 최대 규모 학회라고 알고 있는데 귀한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을 생각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의 대학들이 과연 미래형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고 일대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원은 연구 기능의 연장선에서만 생각해온 측면이 있었으나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역할과 함께 미래의 연구력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 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연세대학교로서는 오늘 학술대회 주제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됩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고 있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은 더 이상 Ivory Tower(상아탑)로 사회와 격리될 수 없고 사회 속에서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교육, 연구, 봉사 기능은 결국 사회에 대한 대학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만큼 저희 연세대학은 Social Engagement University, 즉 “사회문제 해결에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혁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사회공헌원’ 설립을 통해 기존 봉사의 개념을 뛰어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교육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가 실천하고 있는 혁신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20여 년 전에 학부대학을 처음으로 설립해 교양교육 개혁을 추진하였고, 지난해에는 ‘고등교육혁신원’을 신설하여 교과 및 비교과 과정 재편을 통한 사회적 효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사회혁신역량 기초” 같은 신규 교과목 개설, “소셜벤처 창업”과 같은 수업과 실무 경험의 접목, 올해에만 2억 원을 지원하는 학생 대상 비교과 활동 공모 사업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대상 공모 사업은 “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들의 난방비를 해결하겠다”와 같은 창의적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수행함으로써 혁신적 교육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행정과 정책이 교육현장에 혼란과 모순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교육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행정 개선에도 실제적인 선도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나라 대학들과 정책 당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교육행정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한국교육행정학회 김혜숙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15일

연세대학교 총장 김 용 학

❖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

일정	내용				
09:00~10:00	등록 및 리셉션				
10:00~10:10 (10')	개회식 사회: 이동엽(사무국장) 축사: 김용학(연세대학교 총장) 개회사: 김혜숙(한국교육행정학회장)				
세션 1 10:10~10:50 (40')	기초 강연 ◆ 대학원 발전의 비전과 혁신 방향 발표자: 민경찬(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세션 2 10:50~12:20 (90')	기획주제 (대강당)	프로그램 2 (112호)	프로그램 3 (104, 111호)		
	◆ 기획주제1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발표: 이정미(충북대) 토론 1: 이석열(남서울대) 토론 2: 백정하(대교협) 사회: 정수현(서울교대)	◆ 교육행정연구 워크숍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II)" 패널: 염민호(전남대), 변기용(고려대), 송경오(조선대) 좌장: 신정철(서울대)	◆ 박사학위 논문 발표 (혼합) 발표: 김상철, 문찬수, 이진이, 이치호 사회: 변수연(부산외대)		
12:20~14:00 (100')	오찬				
세션 3 14:00~15:30 (90')	◆ 기획주제2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발표: 박세훈(전북대) 토론 1: 유현숙(고려대) 토론 2: 김갑성(한국교원대) 사회: 박삼철(단국대)	◆ 학술지 심사과정의 이해 및 게재 Tip 패널: 김병찬(경희대), 이수정(단국대) 사회: 박선형(동국대)	◆ 박사학위 논문 발표 (교원) 발표: 김민오, 문영빛, 윤정, 이주희 사회: 황준성(KEDI) ◆ 박사학위 논문 발표 (정책분석) 발표: 김정아, 박효원, 장아름, 최선향 사회: 정대범(진주보건대)		
	15:30~15:45 (15')	휴식			
15:45~16:30 (45')	기획주제 종합토론 좌장: 허병기(한국교원대)				
16:30~17:00 (30')	임시총회 - 주삼환 교육리더십상 시상 - 법인 창립 총회				
폐회 후 그룹별 네트워킹 17:00~18:00 (60')	[대학원생] - 대학원생 생활의 희망과 어려움 - 논문 주제잡기 진행: 이광현(부산교대)	[현직 교원] - 나의 교육대학원 생존기 - 교원의 관점에서 본 교육행정학의 의미와 과제 진행: 신재흠(한성대)	[신진 학자 (박사후 5년 이내)] - 학위 취득 후 당면과제 (학술적, 개인적) - CV작성과 취업 전략 진행: 박수정(충남대)	[소장 학자] - 연구비 수주를 위한 준비 - 초임 교수의 적응과 삶 진행: 김성기(협성대)	[분과위원회 모임] - 해당위원회

기조강연 ●●

대학원 발전의 비전과 혁신 방향 발표	민경찬(연세대 명예특임교수)	1
-------------------------------	-----------------------	---

기획주제 ●●

【주제 1】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발표	이정미(충북대)	41
토론	이석열(남서울대)	77
토론	백정하(대교협)	83
【주제 2】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발표	박세훈(전북대)	89
토론	유현숙(고려대)	125
토론	김갑성(한국교원대)	129

기조 강연

대학원 발전의 비전과 혁신 방향

발표: 민경찬(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기조 강연

대학원 발전의 비전과 혁신 방향

민경찬(연세대 명예특임교수)

I. 들어가는 말

세계는 현재 인재전쟁을 벌이고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인재야말로 21세기 혁신, 경쟁력, 성장을 이끄는 핵심요소”라며, 21세기에 요구되는 16가지의 기본역량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실 현재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글로벌 이동은 전 세계 여러 국가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13년 6월 미국 상원은 오바마 이민개혁 법안을 의결했는데, 이는 "수학과 과학을 전공한 외국인 대학원생 중 40%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 쫓겨난다"며 이민법 개혁을 강력히 요구해온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 에릭 슈미트 등 미국 주요 IT 대기업 CEO들의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였다. 캐나다는 매년 5000명의 박사과정, 2만 5000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이민까지 허용하는 유치정책을 펼쳐왔으며, 유럽연합, 중국 등 많은 나라들도 인재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지식 재산’을 보유한 외국의 우수인력에게 ‘창업비자’를 부여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대학원교육을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고급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원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관점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대학원장협의회(Council of Graduate Schools)를 통해 대학원교육의 질을 높여가며, 대학원에 대한 정책, 글로벌 협력 환경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며 미래를 대비해나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대학원교육을 국가 전략 차원의 공공재로 보기 보다는, 대학원생들이 개인적으로 경력을 관리할 목적으로 고급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

4 ❖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

로 인식하는 것 같다. 우리 내부적인 우수인재양성, 해외로 부터의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한 대학원 수준에서의 노력은 어디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는 1990년대를 들어서며 BK21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으로서 새롭게 대학원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BK21을 비롯한 몇 가지의 장학금, 지원금 정책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자리 이슈 등에 따른 대학원교육을 통한 고급인력양성은 국가나 대학, 개인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대학원 생태계는 대학원교육의 내용, 수준, 질 문제,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학습 환경, 해외 유학생의 질 관리 및 생활 문화 환경 문제, 대학원 유형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혼란, 대학원 진학률의 감소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원생의 대학원과정은 주로 지도교수에게 맡겨져 있는 형편인데, 대학원생들이 자신감,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 마음껏 키워 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 여러 불만들이 쌓여가는 형국이다. 2014년 10월에는 대학원생들이 ‘살인적인 등록금, 연구실·실험실의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을 정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주로 자신들의 연구 성과에만 초점을 두고 지내는 형편이다.

그런데 대학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대학원 수준의 고급인력양성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큰 정책 및 미래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나 사회는 물론 대학 스스로 대학원 교육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 지에 대한 그림이 명확치 않다. 부분적인 사안에 따른 정책, 제도 개선이 있을 뿐이다. 대학원은 반값 등록금 정책에서도 배제되는 등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보인다. 각 대학의 입장에서도 대학원 졸업생들이 사회 어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명확치 않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학원 졸업자를 학부 졸업자보다 저평가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현재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진학 동기, 졸업하는 학생들의 전공 및 사회적 역량들을 보면, 대개 그 내용, 수준, 질이 높지 않다는 평가다. 2020년에는 대학 입학가능 신입생이 입학정원보다 작아지기 시작하여 사립대가 38개 사라져야 하는 상황은 바로 대학원 입학생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대학원 졸업생들의 대학 진출을 더욱 어려워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들을 보면 우리 대학원 교육에 분명히 빨간불이 켜졌다고 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 등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오늘의 시대에, 대학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비전을 새롭게 세우며,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우수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교육의 혁신의 방향과

방안을 필자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특히 이 시대에 요구되는 “대학원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며, “학생 성공(student success)”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으로 발전, 혁신하기 위해, 대학, 정부, 기업 및 사회가 함께 미래를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대학원교육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키고 있는 지를 자세히 소개한다.

II. 한국 대학원의 모습

1. 대학원 현황

가. 일반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7년 국내 신규 석사·박사 학위 실태조사를 포함한 몇 가지 자료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우리 대학원의 분위기를 읽어본다. 일부 자료들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여러 수치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우리의 경우 2000년 이후 대학원의 규모는 양적으로 급속한 팽창을 이루어왔다. 2000년 석·박사학위취득자의 수는 53,379명에서, 2016년 95,342명으로 약 78.6% 증가하였다. 학사학위취득자 수는 2000년 214,496명에서, 334,643명으로 56.0% 증가하였고, 석사학위취득자의 수는 47,226명에서, 81,460명으로 72.5% 증가하였고, 박사학위취득자의 수는 6,153명에서, 13,882명으로 125.6%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석사학위 취득자의 대부분은 서울(46.1%)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의 유형에 있어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간의 구분은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유형 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신규박사학위취득자의 입학 평균 연령은 35.6세,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40.9세로 학위취득까지 5.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의 입학 평균 연령이 각 30.9세와 32.1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의 입학 평균 연령이 42.2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위취득 소요 기간은 인문계열이 6년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평균 연령은

6 ❖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

41.2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박사학위자 평균 연령은 31.6세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와 차이가 크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고령화, 높은 직장 병행자 비율, 낮은 고용률로 연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K21플러스사업 및 WCU사업, 대학원대학 육성, 연구중심대학 강화 등의 고등교육정책들은 연구 중심 대학과 대학원의 학문적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약 77.8%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박사과정 진학보다 취업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석사학위 취득자가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주요 목적은 44.1%가 교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박사학위 취득후 취업하는 직장의 유형은 대학이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민간기업이 23.4%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중 학술지 논문 게재 조사 결과, 학술지 게재 평균 논문 수는 국내 0.57편, 국외 0.30편으로 나타났다. 박사과정 중 학술지 논문 게재 조사 결과, 학술지 게재 평균 논문 수는 국내 2.28편, 국외 3.01편으로 나타났다.

석사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860만원으로 4년제 대졸자 3,720만원, 전체 임금근로자 3,012만 원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봉은47.2%가 5,000만 원 이상이며, 2,000만 원 미만이 14.3%로 조사되었다. 취업자의 전체 평균 임금은 5,043.4만 원, 정규직 6,216.7만 원, 비정규직 3,014.1만 원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5,595.2만 원, 여성 3,874.8만 원으로 여성 평균임금이 남성의 약 6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보다 더 많은 석사학위취득자를 배출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의 취업 여부나 이직 등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나. 대학 유형별 현황

한국연구재단의 한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대학의 유형을 6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대학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서울대, 포항공대, 4개 과기원은 학생 입학 수준, 교원 1인당 연구비와 연구실적 등에서 타 대학과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우수연구중심대학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국립대학은 지역의 거점국립대와 기타 대학을 각각 2군과 3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사립대학은 배출 박사인력 수의 규모와 지역을 함께 고려하였다. 전체 박사인력 배출 규모에서 상위 16개 대학이 절반을 차지하므로 이 그룹과 나머지 그룹을 각각 대형과 중소형으로 구분하였다. 대형 대학 중 1군과 2군이 아닌 사립대학을 4군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소형 사립대학은 소재 지역에 따라 각각 5군(수도권)과 6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표1> 대학 유형 구분

구분	유형	개수	설명
1군	우수연구중심대학	6	서울대, 포항공대, 4개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2군	거점국립대	9	부산대, 경북대 등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국립대학
3군	기타 국공립대	34	1군과 2군을 제외한 국공립대학
4군	(수도권) 대형 사립	8	전체 박사인력 배출 상위 16개 대학 중 사립대학
5군	수도권 중소형 사립	68	4군을 제외한 수도권 사립대학
6군	지역 사립	99	4군을 제외한 지역의 사립대학

이공계 교원의 비중은 우수연구중심대학이 72.8%로 가장 높고 대형 사립대학은 약 60%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공계 박사의 배출에도 직결되는데 우수연구중심대학과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은 '16년 대학 당 각각 399명과 227명의 이공계 박사를 배출한 것에 비해 지역의 사립대학과 거점이 아닌 국공립대학의 경우 13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2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표2> 대학 유형별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2016) (단위: 명)

대학 유형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				대학당 평균 이공계 박사 배출
	공학	자연	의약학	합계	
우수연구중심대학	1,397	659	339	2,395	399.0
거점국립대	390	448	353	1,191	132.0
기타 국공립	247	146	44	437	12.9
대형 사립	637	549	628	1,814	227.0
수도권 중소형 사립	591	302	268	1,161	17.1
지역 사립	319	290	660	1,269	12.8
계	3,581	2,394	2,292	8,267	36.9

2. 정부의 정책

그동안 정부나 사회가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을 논할 때 대학원에 대한 내용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는 물론 대학들이 오늘의 시대적 변화과정에 대학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며, 이는 선진국들의 인식과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그동안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 대학의 학부과정이 보편화 되면서 학부 졸업생들이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지식경제시대에는 대학원 수준의 인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왔으나, 현재 대학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산업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학원 시스템도 그 범주를 맴돌고 있다.

우리 정부의 최근 대학원 관련 정책들을 봐도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이나 전체 생태계를 보기보다는, 현장의 개별사안 중심이다. 1999년에 시작한 BK21 사업이 대표적이며, 2012년에 시작한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양성사업’, 대학원생 인건비 보장제도 등 몇 가지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들만 있을 뿐이다. BK21(Brain Korea 21) 또는 두뇌한국 21 사업은 대학원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1999년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이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7년씩 2단계에 걸쳐 약 3조 5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에 시작한 BK 21 플러스 사업은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2,526억원을 약 500개 내외 사업단(팀)에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세부유형은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글로벌인재양성형은 첨단융합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원 국제협력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인재” 양성하는 것이며, 특화 전문인재양성형은 “고급 실용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이며,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은 학문 전분야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6년 7월 교육부는 대학원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대학원이 자율적,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학원의 정원 조정을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상위권대학은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하는 것이었다. 학부 → 석사는 1:1 비율로 조정 가능하고, 박사 ↔ 석사는 : 1:2 상호 조정 가능하게 하였고, 중하위권 대학은 현행 유지 또는 규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경쟁력 있는 대학원에 한하여 교육여건에 따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 자율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새정부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기반이 미약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IT가 기존 산업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융합기술능력, 복잡한 의사소통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는 미래의 사회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9월 3일에는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들이 스스로 혁신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일반대학의 경우 187교 중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120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이들 대학 중 얼마나 대학원 교육에 정책적 비중을 둘 것인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대학도 대학원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3. 대학 현장

가.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교육·연구 환경

1) 대학원생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한 학생이 대학원에 들어오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지만, 대개 동시에 다른 역할이 주어진다. 연습조교, 연구조교, 행정조교, 근로 장학생, 벤처·용역사업 지원인력, 학회 간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대학원 생활을 이어간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조교 등 다른 업무의 과잉 부담 때문에 본연의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올해 발표된 「대학원생 권리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원생 조교는 평균 일주일에 20~30시간 조교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보수 등 제반 사항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대학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들이 '장학'의 개념인지, 교

수의 연구, 실험 또는 학과, 학계 유지 위한 인력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대학원 학생을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다.

‘2016년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7.4%가 ‘주말과 공휴일까지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렸으며 18.5%가 ‘적절한 인건비를 받지 못’했고 15.4%가 ‘조교 초과근무’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

대학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위계적, 종속적 관계인가? 아니면, 교육·연구의 가치를 공유하며 교수와 함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공동체를 만드는 관계인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저자세를 면하기는 쉽지 않다. 학문적 권위에서부터 형성된 교수-학생의 위계 관계가 학문과 무관한 다른 권위들과 합쳐지면 문제가 되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동반되기도 하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대학원생에게 떠넘겨진다. 성폭력·성희롱 사건도 이러한 환경에서 나온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대 중앙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가 보도한 성범죄 기사에서 대학 교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대학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들 중 권력을 이양 받은 대학원생이나 선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대에서 조사한 「2016 대학원생 인권실태 및 교육연구환경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선배·동료에게서 발생한 신체적 폭력 및 집단적 따돌림이 교수·강사에게서 발생한 것보다 2~3배 정도 높았다.

교육부도 “인권과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대학원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이다. 교수-대학원생 소통 등 대학 문화의 변화에 대한 교수들의 적극적 관심 요구되는 시점이다.

3) 불안정한 재정적인 환경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대학원생의 연구환경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학원생들은 ‘장학금 및 연구수행 등 수입이 없으면 학업수행이 어렵다’(65.7%)고 하였다. 그런데 국가 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은 1인당 534만9천원(대학알리미, 2016년 기준)으로, 1년간의 등록금은 841만8천원(대학알리미, 2017년 기준)에 많이 못 미친다.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박사과정 학비의 출처는 본인 또는 가족이 5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교 장학금 등 기타 모든 장학금 34.6%, 대출 8.0%,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3.7%, 기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종 연구비 부정행위로 언론에 부각되는 이공계 실험실 내부의 인건비 풀링(pooling) 제도는 대학원 현장에서 하나의 딜레마다. 이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인건비 횡령과정의 '공범'이 되는 환경에 처해지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금액은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개인의 참여 정도에 의거해 책정되나, '참여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 대학원생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보통 '석사 40만원, 박사 4학기까지 60만원, 졸업할 때까지 80만원' 등으로 인건비가 미리 정해지기도 한다. 이 또한 다른 불만들을 쌓게 한다.

대학원생들은 이와 같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래서 대학원에 와서 연구하면 잘 될 학부생 친구들도 대학원의 현실을 아니까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4) 교육·연구 환경

일반대학원은 대학원생들에 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고등교육법 제29조의 2)”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문제는 과연 대학원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나. 대학원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 두 가지 과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는 논란이 있어왔으며, 선택적인 요소일 수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학원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원에서 교수들의 위치는 대학의 운영 방향과 시스템 때문에 연구 성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들에 대한 교육에는 충실하지 못해왔고, 대학원생들 자체를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에 그치게 하였다. 이 과정에 대학원생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물론 이 과정을 대학원생들에 대한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대개 실험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주어지는 단순 노동,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 등으로 수업은 실험하다 중간중간 듣는 정도이고, 자신의 과제에는 시간 할애가 부족하게 되어 부실한 연구가 되면서, 자신의 실험에 대한 흥미가 감소되어 중도포기자가 나오기도 한다. 이 과정에 일과 인건비의 분배에 대한 형평성도 대학원생들의 불만을 더욱 쌓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대학은 기업화되어가고 지식 생산도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 뽑아내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학문적 능력보다는 연구비 관리 능력이 더 인정받는 것 같은 현실, 그래서 '교수가 공부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며, '연구자'라기 보다는 '사업가'인 것 같다는 소리가 대학원생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한 지식들도 그 내용과 실질적인 영향력(impact)보다는, 우수학술지 몇 편, 특허 몇 개 등 수치적으로만 평가받고 있어, 대학원생들의 학문, 연구의 목적, 목표,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매우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틀에 가두고 있다. 교수는 물론 대학원생의 연구 주체로서의 학문적 자율성과 그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III. 해외 대학원의 모습

1. 해외 대학원의 발전 방향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대학원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발전시켜가고 있는지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소개한다. 21세기 지식 시대, 글로벌 경제 시대, 과학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시대의 흐름에서 대학원의 역할에 대한 철학, 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가고 있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첫째, 대학원 교육을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대학원 교육을 통해 내부적으로 매우 우수한 인재 풀을 유지하고 해외 우수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는 국가 간 '인재유치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둘째, 대학원에서의 교육(teaching)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대학원의 공공적 책무성의 회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은 연구에 주로 비중을 두어오면서 '교육(teaching)'을 희생시켜왔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세계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비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 혁신은 "학생 성공(student success)"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학원 교육을 학문(academic)영역과 사회진출(professional) 영역이라는 두 개

의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석사, 박사과정을 마친 학위취득자들이 대학 내부에서 자리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 요구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학원은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졸업 후 대학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고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쳐왔다는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표현되는 오늘의 시대는 더 나아가 학문적인 활동과 기업 등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넷째, 대학원은 학생들이 대학의 안과 밖에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창조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폭넓게 교육과정을 개조하고 있다. 입학, 정규교육, 자격시험, 논문지도, 학위수여, 직업 및 직업시장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과제들이다. 또한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는 ‘한 학생’에 관한 입학정책, 학습 성과, 학생 훈련 및 체험, 논문 지도 과정, 연구소통 능력, 논문의 질, 연구 성과의 영향력, 학제적·글로벌 연구 경험, 학위 취득을 등을 포함시켜 조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대학원 교육에서 전공 역량과 더불어 기본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과정 졸업 후 진로 및 활동을 고려하며 변화되는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들(essential transferable skills)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대학원에서도 학부처럼 핵심 공통과정(core curriculum)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섯째, 대학원 교육에서 ‘학생 지도’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학위를 받기까지 과도하게 걸리는 시간, 학위과정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 석·박사 학위 후의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이에 대한 부족한 준비 등은 심각한 문제들이다. 박사과정에서 강의자로, 교수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과 존재하지도 않는 교수직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점이 중요한 문제다.

일곱째, 대학원 교육에서도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접목을 위해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flipped learning, MOOCs, Minerva 대학들로 대변되는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생태계에 변화를 가속시키며 새로운 장들을 열어가고 있다. 이미 여러 대학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위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저비용 고효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여덟째,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대학, 기업들의 상호 협력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산학 간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정부, 필요한 역량들을 요구하는 기업, 학생들의 진로개발 관련 역량들을 키우는 대학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은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아홉째, 대학원 교육에 대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학생과 연구자들의 글로벌 이동(global mobility)은 갈수록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실, 국가들마다 해외 우수인재들을 유치하고, 인재들을 해외로 내보내 훈련시키는 정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제는 두뇌유출(brain drain) 개념도 장기적 관점의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나라가 중국과 인도다.

2. Strategic Leaders Global Summit

우리나라 대학원 모델은 미국의 프레임과 유사한 방향에서 발전되어 왔다고 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학부는 영국의 'college' 개념 그리고 대학원의 독일 대학의 이상을 담아 발전되어 왔다. 물론 미국 대학은 그가 속한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상황 및 환경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인지, 현재 대학원교육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은 미국 <대학원협의회(the Council for Graduate Schools, CGS)>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 협의회는 매년 3박4일 동안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소개하는 바와 같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 협의회는 2007년부터 전 세계를 돌며 2박3일 동안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모여 "Strategic Leaders Global Summit on Graduate Education"이라는 대학원교육 관련 토론회를 주관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만들어왔다.

올해 11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대학에서 갖는 제12차 회의에서는 "Supporting Diversity in Graduate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글로벌 서밋'은 매년 비공개로 토론중심으로 진행되며, 대개 16개 국가에서 대학원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문가 35명 정도가 초청되어 참석한다. 이 모임은 매년 운영위원회가 정한 '글로벌'관점에서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참석자 모두가 역할 분담하며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 모임에서는 주로 대학원 교육의 질 개선 및 대학원생 양성 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날 종합된 아젠다를 담은 <Principles>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다. 필자는 제3차부터 제7차 모임까지 운영위원, 발표자, 토론자로 참여한바 있다.

그동안 이 ‘글로벌 서밋’에서 다뤄진 이슈들을 소개한다.

2007년(캐나다): **Global Perspectives** on Graduate Education

2008년(이태리): **Scholarly Integrity and Research Ethics** in a Global Context

2009년(미국): **Graduate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How to Build and Sustain Them**

2010년(호주): **Measuring Quality** in (Post)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Training

2011년(홍콩): **Career Outcomes** for Graduate Students/Tracking & Building Pathways

2012년(독일): From Brain Drain to Brain Circulation: Graduate Education for **Global Career Pathways**

2013년(헝가리): Graduate Education and the **Promises of Technology**

2014년(캐나다): **Interdisciplinary Learning** in 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2015년(싱가폴): **Implications of “Big Data”** for Graduate Education

2016년(브라질): **What Is a Doctorate?**

2017년(미국): **Graduate Education 2030: Imagining the Future**

2018(남아프리카): **Supporting Diversity** in Graduate Education”

3. Graduate Education 2030: Imagining the Future

앞으로 미국 경제 생태계는 더욱 도전적이고 활기찬 일자리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전체의 근로자의 1/3이상이 매년 일자리를 바꾸고 있다. 오늘의 학생들은 38세가 되면 10~14개의 일자리를 가질 것이다. 근로자의 반은 한 직장에 5년 이상 머물지 않을 것이다. 매년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은 지난해에 없었던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오늘 약 5천 7백만 명은 프리랜서들이다. 2020년이 되면 근로자의 43%가 계약직, 기간제, 자영업 영역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지금 지구촌에서 학생과 연구자들의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이라는 글로벌 이동(global mobility)은 인구가동의 주류 중의 하나가 될 정도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재전쟁이 벌어지는 형태의 하나이기도 한데, 물리적인 이동은 물론 ‘human cloud’ 등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교류, 순환 및 협업이 갈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새로운 대항해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가는 시대이기에 미래를

조망하며 대비하는 일은 중요하다. 2017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제11차 Strategic Leaders Global Summit은 “Graduate Education 2030: Imagining the Future”를 주제를 중심으로, “2030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원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에서 나온 ‘..A Statement of Practical Actions’에 제시한 내용 중 몇 가지 소개한다:

가. Global and Regional Demographic Shifts

- Cultivate and promote a culture of inclusivity. (i.e. refugees, veterans,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turning adult students).
- Institutions should develop more online and hybrid graduate programs to roaden access to graduate level education.
- Develop ethical guidelines around supervisor/student relationships.

나. Trends in Technology

- Improve the ability to track the performance and progress of graduate students.
- Create standards and best practices for the delivery of online graduate education programs.
- Widen the scope of delivery of graduate programs to off-campus, off-shore students.

다. Generational Perspectives

- Develop guidelines for mentors and mentees that address common trends and consider differences in generational communications and learning styles.
- Encourage the use of an Individual Development Plan (IDP) across all disciplines to set specific career goal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s.

라. Globalization

- Develop programs/curricula that foster global competencies in the absence of travel abroad,
- Create and fund a grand challenge competition that includes a moral/ethical value proposition, allows broader topics to involve all disciplines, and requires

participation of graduate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to enhance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networking.

- Host a professional development workshop webinar with speakers from institutions across the world in a variety of careers.

마. Workforce Demands

-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credentials and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Examine the defining purpose, characteristics, and value proposition of each, particularly in relation to needs of the changing workforce.
- Rethink/Redefine the purpose of the PhD given the varied career paths of doctoral-recipients.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transferable and cross-disciplinary skill sets.
- Develop formative and summative assessment strategies for transferrable skills such as teamwork, oral communication skills, global awareness, project management, and leadership.

바. Conceptualizing the University

- Develop guidelines on how universities can demonstrate their impact and contributions to society.
- Think more concretely about learning outcomes and assessments for graduate education and find ways to assess contributions of all career paths.

4. 미국 대학원 이야기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미국 대학원 변화와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한다.

가. 새로운 도전

2010년 4월 미국 대학원협의회와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공동으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랫동안 준비한 보고서 “미국 대학원교육의 미래”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촌의 다양한 변화들을 읽으며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대학원교육에서

의 대학, 정부, 기업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1년 후인 2011년 4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과제들에 대해 대학, 기업,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천' 보고서를 내 놓았다. 그 주요내용들을 아래와 같다.

미국은 대학원교육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원교육의 강화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본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은 미래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번영, 글로벌 경제에서의 리더십이 대학원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고, 우수한 대학원 학위 소지자를 얼마나 충분히 길러내느냐에 관심을 두었다. 당시 미국 노동통계국 예측에 의하면, 2018년까지 석사학위가 요구되는 일자리는 18%, 박사학위는 17%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대학원교육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 해왔지만, 학부과정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잘 오지 않고, 대학원에 등록했다라도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떠나는 등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평생교육 또는 직업 전환 등의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원생 지원, 학위 취득기간, 진로 지도에 대한 정책들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박사과정 학생의 40~50% 정도가 중간에 포기하고 있어서, 학위 수료를 돕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박사학위 후 대학에서 종신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2500만개의 직업이 석·박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사과정 학생들도 대학 밖 진로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로부터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중국, 인도,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해외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학원교육에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담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나. 새로운 전략

오늘의 변화되는 환경에서 미국은 대학원교육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학, 기업, 정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1) 대학의 역할

-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오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 학위 취득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으로 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대학원생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정보, 멘토링,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석·박사 과정생 모두 'transferable skills'를 키워 미래 진출 영역을 넓혀줘야 한다.

- 현 교수그룹의 연배가 높아짐으로 우수한 다음 세대 교수들을 잘 키워야 한다.

2) 기업의 역할

- 대학원생들에 대한 기대, 요구사항을 대학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대학원생 대상의 재정지원, 인턴십, 실무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기업 내부 인력들의 대학원과정 교육훈련 및 학위 과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소수(underrepresented)그룹의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21세기 일자리는 대학원을 통해 얻을 수 있음을 고등학생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3) 정부의 역할

- 미국 시민들이 대학원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해야 한다.
- 국가적으로 필요한 영역의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목적형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 새로운 혁신적 석사과정 개발,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 외국 학생들이 학위를 마친 후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비자, 이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다. Professional Science Master's 프로그램

국가 지도자들은 미국의 경쟁력은 혁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며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대해 대학원 차원에서 반응하며 나온 것이 전문과학석사(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s) 개념이다. 이는 대학원의 혁신 프로그램 중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으로 PSM은 자연과학, 수학, 기술, 공학, 컴퓨터과학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들에게 다음 단계를 위한 흥미를 돋구는 선택이 되고 있다. 이들은 대학원에서 Ph.D. 과정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훈련과 역량들을 얻기 위해서다. 이 PSM은 대학, 기업, 정부가 협력하는 좋은 사례 중의 하나로서, 과학영역의 석사과정에서 경영, 법, 정책, 소통능력을 키우도록 하여 사회에서 폭 넓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는 현재 미국 대학원교육의 혁신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PSM을 시행하는 130개 대학에서 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캐나다, 영국, 호주가 포함되

어 있다. 2013년 현재 5,800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으며, 2010년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다. 이 때 기준으로 PSM 졸업생의 91%가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영역의 직장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PSM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의 매력 있는 일자리 기회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둘째 과학기술 기반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며, 셋째 갈수록 인기 있는 전문성 기반의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 미국 대학원협의회(CGS)의 역할

미국 대학원협의회(Council of Graduate Schools, CGS)는 지난 50여 년 간 대학원장들의 커뮤니티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 기관은 미국의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유일한 국가 차원의 민간기구이다. 그동안 이 기관은 대학원에서의 교육 관련 정책, 혁신적 연구에 대한 일과 이에 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개발하고 과급시키는 일을 그 사명의 하나로 인식하고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여 왔다. 이 기관은 또한 대학원장들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오늘날 대학원 교육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와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하는 차원에서의 행사들을 조직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CGS는 매년 12월에는 정례 미팅, 7월에는 4박5일에 걸친 “신임 대학원장 워크숍”, 가을에는 전 세계 대학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초청되는 “Strategic Leaders Global Summit” 등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면 CGS가 대학원교육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 과연 어떤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그 사례 중의 하나로, 오는 12월 5일~8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8차 “CGS Annual Meeting”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을 소개함으로써, 대학원 발전에 대한 방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와 미국에서의 대학원 발전에 대한 관점과 방향을 비교해봄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메시지를 얻게 될 것이다.

1) Pre-Meeting Workshops

이 워크숍은 12월 5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학원 발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주제로 설정하는데, 아래와 같다.

- Legal Issues

- Master's Level Enrollment Management
- Basics of Data Visualization and Analysis
- Supporting First-Generation and Underrepresented Students
- Ph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Diverse Careers
- Individual Development Plans: Roadmaps for Student Success
- Master's Education in a Changing International Landscape
- Mission-Driven Admissions: A Holistic Perspective
- Supporting Innovation in Dissertations and Theses
- Using Student and Alumni Successes to Tell Your Graduate School's Story
- Review of Graduate Programs: Master's and Doctoral
- Promoting Graduate Student Mental Health

2) Meeting Sessions

CGS 정기 모임은 2달 3일간 진행되며, 대학원교육에서의 여러 관점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plenary sessions, concurrent sessions, lightening round sessions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가) Plenary Sessions

- Race, Gender, and Higher Education: The Shifting Landscape
- The Leadership Role of Philanthropy in Advancing Talent: A Shared Agenda Where All Learning Counts
- Weapons of Math Destruction and the Ethical Matrix: How to Embed Ethical Consideration in Big Data Contexts
- Do Ideas Still Matter? The Role of Intellectuals in Shaping the Nation's Future - LaPidus Lecture
- Legal Trends in Graduate Education
- Three-Minute Thesis (3MT[®]): People's Choice Competition and Roundtable Discussion

나) Concurrent Sessions

- Using Data to Support the Lifecycle of Graduate Student Success
- Understanding the Master's Admissions Landscape
- Engaging Graduate Students in Advocacy

- Defining and Implementing Graduate Learning Outcomes and Competencies
- Great Expectations: Understanding Humanities PhD Career Pathways
- Updates from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Leadership Progression: Pathways into the Deanship
- Recruiting and Supporting Indigenous Students
- How Machine Learning Will Change Graduate Admissions
- Navigating the Sea of Surveys
- Access and Diversity in a Global Context
- Promoting Graduate Student Health and Wellness
- Preparing Future Faculty to Assess Student Learning
- Developing the Public Value of 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 Partnerships with Employers

다) Lightning Round Sessions

현재 대학에서 가장 도전적인 어려운 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30분 토론을 갖는다. 또한 산업계 리더들로부터 최근 대학원들과 협업하고 있는 내용들과 미래를 새롭게 형성해나가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며 토론을 이어간다. 이 세션에 포함될 주요 주제 두 가지 소개한다.

- Showcasing Your Graduate School (sponsored by bepress)
- Is Online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Next Wave for Graduate Education?
Research Results from a Four Year Study (sponsored by DoctoralNet)

5. 다른 나라들의 글로벌 전략

현재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은 매년 12% 정도 증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해외로 내 보내고 또한 해외로부터 유치하기도 한다.

중국의 해외로 나간 유학생은 50만 명 정도이며, 들어오는 유학생은 20만 명 정도인데, 2020년까지 5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유학생 수는 양 방향으로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해외 유학생 귀국인 수는 48만900명으로 이들 중 석사, 박사, 박사후 학위자는 총 22만 7400명으로 이들을 두고 도시 간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2018년 현재 고등학생 단계에서의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30만 명, 싱가폴은 2015년 까지 15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홍콩도 정부가 나서서 'Postgraduate Fellowship'으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고, 한편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캐나다는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으로 매년 석사과정 2만5천명, 박사과정은 5천명의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박사과정생 중 천명은 영주권을 준다. 특히 'Vanier Canada Graduate Scholarships'으로 세계적 수준의 박사과정생들에게 3년간 매년 5만불을 지원한다. 또한 'Banting Scholarships'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을 통해 톱 클래스 박사 후 연구원들을 유치한다. 브라질은 2012년부터 5년 간 10만 명의 학생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등 여러 나라들과 학생교류를 확대하여 왔다.

유럽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1999년 '볼로냐 선언' 이후 유럽 전역을 하나의 교육권역으로 묶었으며, '에라스무스' 프로젝트를 통해 2012년 3백만 명의 학생들이 유럽 내를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시켜왔다. 2004년부터는 5년간 유럽 밖에서 6천명의 학생을 받아들여 지원했고, 개발도상국 교수들 천명을 받아들이고 지원하기도 했다.

오늘날 지구촌의 전반적인 유학생 추세는 비자발급, 일자리 환경 등으로 인해 기존의 몇몇 주요국가 중심에서 전 세계 여러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의 장학금 감소로 아시아 자비유학생이 부상하고 있는데, 유학생 수가 급증에 따른 '질'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IV. 미래를 위한 대학원의 비전과 혁신 방향

우리는 대한민국과 국민 한 사람의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21세기, 지식경제시대, 4차산업혁명시대 등으로 새롭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글로벌 환경과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잠재성장률의 빠른 감소 등 우리의 사회적 환경은 여러 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과제를 뛰어 넘어 도전하고 극복해나가려면, 고급우수인재 양성이 필수 조건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를 향한 대학원의 역할과 비전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혁신적 과제들을 찾아내며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원칙들을 제안한다.

1. 기본 인식과 방향

가. 기본 인식

정부, 대학, 기업 등 우리 모두는 오늘과 같은 지식, 디지털 시대에는 학부교육 단계의 수준을 넘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고급우수인재가 국가 경제발전 및 대학 경쟁력에 대한 전략적 자산인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양성하는 대학원교육의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방안을 세워나가야 한다. 대학원에서의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적 역할 및 영향력을 새롭게 인식하고 의지를 키우는 일이다. 그러므로 먼저 ‘미래’, ‘글로벌’을 생각하고 대학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키우며, 새로운 철학과 비전,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와 미래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대학원을 혁신해나가는 일이다.

사실 우리는 대학원 교육을 학생 각자의 미래 진로를 위한 경력개발 차원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공공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교육과 연구에 기반을 둔 고등교육은 개인 중심의 행위 자체의 단계를 넘어, 대학, 정부,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공공의 선’을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도덕적’ 차원에서의 그 사회적 역할(social impact)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는 고등교육과 사회가 상호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기여하며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고도의 역량을 갖춘 박사들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여러 고유의 가치들을 더욱 잘 유지 발전시키며 더욱 건강한 민주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나. 기본 목표

대학원교육의 기본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미래 선진사회 준비전략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내 석·박사를 양성하는 일이다. 둘째는 교육프로그램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국내 석·박사 소지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셋째는 유연한 대학원 교육 체제 운영과 국내외적 개방과 협력(open innovation)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다. 기본 방향

기본적으로 대학원교육은 “학생성공(student success)”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교육은 대학교, 단과대학, 전공 등 각 단위별 독자적인 철학과 비전에 따라 “인재상”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한 학생의 변화”이어야 한다. 학생이 성공적으로 변화, 발전할 때 교수도 학문적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과 연구는 하나의 사이클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학원교육도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학부교육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온 “잘 가르치는 대학(ACE)” 모델(아래 그림 참조)처럼, 대학원교육도 인재상 중심의 목표 지향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대학 전체, 단과대학, 전공 단위별 특성에 따라 ‘인재상’이 세워지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선순환 구조



[그림1]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선순환 구조

이 그림은 단위별로 독자적인 인재상을 세우고, 이러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소양과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소양과 역량을 키우는데 잘 준비된 학생들을 입학시켜, 제시된 소양과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시스템을 설계, 운영하고, 이 교육시스템에서 과연 기대하는 소양과 역량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함양되었는지를 평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선 순환적 혁신모델이다. 아래에 전개되는 대학원교육 혁신 생태계는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그려질 것이다.

2. 대학원교육 혁신 생태계

가. 인재상 세우기

대학원교육을 혁신함에 있어 정책, 제도 보다는 먼저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정책, 시스템, 조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꾼다 해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 달려 있다. 대학원교육도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원생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과 방식, 일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위 영역별로 독자적인 철학과 비전을 세우며 한 학생을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지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즉 인재상을 세우는 일이다.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준비 또는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과정에서 연구주체로 성장시켜야 한다. 지도교수 프로젝트 도우미 정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학원생의 연구과정을 좋은 저널에 게재하는 단계에 머물게 할 것인지, 연구내용의 선택 단계부터 연구의 의미와 가치를 담으며 공인의식을 갖도록 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학원생은 스스로 고민하며 자유롭게 탐구방향과 연구주제를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 시대에 세운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학원 현실을 직시하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에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이들이 찾거나, 만들어 갈 수 있는 진로를 생각하며 인재상을 그려야 한다. 박사학위 받고도 대학에 남아있는 비율은 30%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

나. 기본 소양과 핵심역량 제시하기

대학원생은 학문의 길, 사회 진출의 길 중 어느 길을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며 접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사람들과 창의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 소양과 역량들이 필요하다. “mission centered”, “market smart”라는 두 관점을 진로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석사, 박사과정생들은 졸업 후 대학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으로 옮겨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석사, 박사 과정생 모두에게 미국 대학원장협의회 자료에서 제시한 것처럼, 졸업 후 필수적인 고급의 교수법, 글쓰기 기술, 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준 높

은 역량, 언어적 소통능력, 글로벌 감각(global awareness), 프로젝트 관리, 경영, 리더십 등 비학문적 환경에서의 체험, 폭 넓은 훈련 등 “transferable skills” 갖추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지도자의 덕목으로 지혜, 관용, 수용성, 페어플레이 등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인재상, 진로 방향에 따라 필요한 ‘skill’들을 찾아야한다. 예를 들어 PSM(Professional Science Master’s)은 science 바탕위에 management, policy, communications, law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대학원에서도 학부 교육과정처럼 ‘core curriculum’의 필요성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 입학조건의 강화

대학원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입학생들의 질이 높아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동기가 지적 역량을 키우거나 학문의 길을 가기 위한 것보다, 취업이 어려워 새로운 기회를 찾을 목적 또는 졸업하는 대학의 평판을 활용할 목적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도 BK21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수에 따라 재정지원액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양적 확대를 선호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생의 역량을 학부 졸업생 보다 저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제 대학원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려면, 입학단계부터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별, 전공별 특성에 따라 “한국형 대학원 입학자격시험(K-GRE)” 등 대학원 입학자격 시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대학원의 전공별 입학생 입학시험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되기도 하였다.

라. 대학원교육 시스템의 혁신

1)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고등교육법은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77.8%가 취업을 하고 있고, 박사학위 취득자들 중 대학에 남는 29.7%이외는 사회로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대학원도 대학 또는 학문영역별로 학문(academic) 트랙과 전문직 취업(professional) 트랙으로 분리하며 트랙을 다양화 시키고, 시대적 변화 요구와 대학원 졸업생의 진로를 의식하며 ‘일반’, ‘전문’, ‘특수’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는 대학원 시작 단계부터 다양한 진로 선택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마땅히 대학원생들에게 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좋은 삶’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주는 일이다. 특히 주어지는 교육과정만을 따르기보다, 교수의 지도하에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과 단위를 넘어 학제성과 협업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이는 직업석사(Professional Master)제도의 도입을 의미하며, 인문사회계는 PMA (Professional Master's in the Social Sciences & Humanities), 이공계는 PSM 과정을 만드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석사학위 중심 대학, 석·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연구 중심 대학, 실무자 인력양성 대학원 등으로 차별화시켜 학위과정을 다원화하여 대학원의 역할 재정립, 재구조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때다.

PSM 프로그램은 자연과학분야에서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PSM은 그 의미 상 자연계 분야의 취업률 측면, science 기반으로 사회 여러 영역에 진출하는 폭을 넓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신규 석사학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률이 34.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이 ‘과학’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기업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인재 활용 과정에 직무성격, 요구되는 역량, 그 수준에 대한 틀이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현실은 융합의 내용보다 출신대학 및 ‘전통적’ 학과의 이름으로 지원자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문화다.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과학’의 경우, 수학, 물리 과목에 대한 역량이 대학의 랭킹과 연동되어 있다는 평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기업 등 수요자들은 PSM의 특징을 잘 모른다. 그러므로 중간 단계로 복수전공의 틀로 접근하고, 속도를 보며 PSM 등을 일반화 시켜나가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연구 환경 혁신

가) 교수와 학생 관계 재정립

우리의 대학원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며 살아갈 세계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비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학원 혁신은 “학생 성공(student success)”에 초점을 맞춘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수는 대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우선 ‘학생’들을 생각해야 하며, 그리고 이들에 대한 ‘teaching’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교육에서도 가르친 지식에 대해 평가하기 보다는 미래의 학습

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과감하게, 수십 년간 이어온 획일적, 관습적 방식들을 새롭게 재정비(reset)해야 한다. 소위 'old-fashioned', 일관성 없는 과목개설들, 부풀려지는 학위 취득기간, 'outdated'된 학위논문 요건, 왜곡된 대학에서의 일자리 여건, 대학 밖의 일자리에 대한 준비 실패 등을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할 과제들이다.

각 전공학과와 교수는 대학원생들이 입학할 때 그들의 진로 전망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즉, 교수직이 별로 없어 박사학위를 받더라도 교수가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 등을 이야기 해주고, 이들이 미래 진로를 잘 선택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수는 석사, 박사를 얼마나 배출했느냐보다, 그들이 행복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들을 배출하는 과정에 교수직을 가져야만 만족하도록 가르친 것이라면, 분명히 그들이 행복하지 않도록 가르친 것이다. 이는 윤리적 실패 이상의 도덕적 이슈이며 교수들은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현재의 교수들은 과거 자신이 담아 있던 '좋았던' 시절의 기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학원생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준비 대응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재학 중 이들의 위상에 맞게 예우해주어, 지금까지 대학원생들의 교육과 연구 환경에 대해 지적되었던 여러 불만,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독창성, 창의성을 키우려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연구실 문화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학원교육에서 교수와 학생은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2013년 The Economists가 발간한 한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는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종류의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과학은 권위에 도전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젊은 과학자들이 종종 선배 과학자들의 의견에 반발하기를 주저하는 문화라는 것이다. 우리 대학원에서 학생들의 독창성, 창의성을 키우려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연구실 문화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보이어 위원회(the Boyer Commission)에 의하면, "젊은 학생들의 새로운 생각과 교수의 연구 연륜이 서로 배우게 하며 자극을 주게 될 때 우연한 아이디어의 충돌로(accidental collision of ideas) 새로운 결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실 오래전 홉볼트는 그의 대학관에서 "대학은 도그마의 형성과 전수의 장소가 아니고, 교수와 학생이 동반자의 위치에서 개방된 자세로 함께 지식을 형성하고 학습하는 곳이다."라고도 하였다.

나) 디지털 대학 만들기

미국 조지아 텍(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은 2015년부터 기존 등록금의 1/7 정도를 받고 컴퓨터 과학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MOOCs(Massive Online Open Courses)의 등장은 전 세계 대학들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2025년경 대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며 새로운 대학의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라 한다. 하버드대보다 입학하기 어렵다는 캠퍼스 없는 혁신대학인 '미네르바 스쿨'도 주목할 대상이다. 또한 애리조나주립대처럼 학부 1학년 과정을 무크형 온라인 교육으로 전 세계 누구나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온라인 석사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는 등 각종 규제들이 있는데,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다.

오늘의 대학원에는 1995년에 출생한 Z-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스마트 폰 등 각종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해온 그룹으로 '참여'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함께 동반자로 디자인하고 창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열쇠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이 에듀테크로 접목되어 그 활용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학기'제도를 넘어 '연중 학습' 개념을 대비해야 할 때다.

다) 지원 시스템

(1) 대학원생

대학원생들이 교육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대학원생을 연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인권, 교육 및 연구 환경, '조교'등 부수적 활동에 따른 대우 등은 '선진화'되어야 한다.

대학원생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졸업하기, 학위 취득 소요기간의 최소화, 졸업 후 진로 준비 등을 위해 대학, 학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멘토링 및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우수인재들도 오고 싶어 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다.

(2) 교수

교수들이 대학원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려면, 교수들에 대한 '성과' 개념을 바꿔주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수의 책무를 '연구'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하

는 한 대학원교육의 혁신은 어렵다. 교수에게 “논문 1편 150점, 석사과정 지도 5점”이라는 평가체제는 현실적으로 교수의 교육자로서의 책무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게 한다. ‘사명감’만 요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논문 1편 만들기보다, 석사과정 생 2명의 논문지도가 더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교수에게는 적절한 강의, 연구, 행정 부담과 함께 교육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3) 대학

대학원 교육의 질을 혁신하려면 재정지원의 내용과 방식도 혁신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대학원교육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범주에 대학원 단위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도 대부분 학부중심 지원이지, 대학원교육에 대해서는 “BK21 플러스”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은 기존의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정부는 대학원교육에 대한 큰 방향만 제시하고, 각 대학이 독자적인 철학과 특성을 살려나가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학부교육에 대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대학원교육과 연계된 “잘 가르치는 대학원(G-ACE)” 사업을 제안 한다.

이 사업에는 일반대학원에 PMA, PSM 등 직업 지향 석사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하는 과제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대학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금까지의 대학교 단위로 지원과 더불어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 성과측정

대학원에서는 대학, 전공별로 현재 운영되는 교육시스템, 즉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과 연구 활동에서 과연 앞서 제시한 인재상에 따른 기본 소양과 핵심역량들을 한 대학원생에게 얼마나 제대로 담아주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교수에게 달려있다. 교수가 얼마나 이 교육시스템을 이해하고 강의실, 실험실에서 주어진 방향에 맞추어 학생들을 지도하느냐다. 문제는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연구에서 그 내용, 추구하는 목표, 가치 등에는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교수들은 교육보다도, 좋은 저널, 인용횟수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대학의 평가 목적과 방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교육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의 대학원에는 “학문”, “학풍”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오직 숫자들만이 회자되고 있다. ‘학문의 전당’, ‘상아탑’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의 언어로 취급받고 있다. 대학원교육이 혁신되려면, 먼저 대학원에 학문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표중심의 평가들이 교육과 연구의 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계산해 봐야 한다. 교육의 ‘질’, 연구결과의 ‘영향력’, ‘글로벌 수준’이 무엇이어서 하는 지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노벨상, 필즈상도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다.

V. 결론

그동안 우리 정부나 사회는 혁신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 일로 시켰다. 그러나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아무리 새롭고 좋은 제도나 시스템으로 바꾸더라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새로운 철학, 비전, 전략을 위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첫째, 우리의 대학원교육 혁신도 정책, 제도, 시스템 변화에 앞서, 먼저 “대학원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되찾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요즘 대학원에서는 학문, 학풍이라는 용어가 들리지 않는다. 자유로운 지적 탐구가 생명인 대학이 기계적 논문생산의 기지처럼 되었고, 시대의 문제를 당면하며 새로운 지적 실험을 하는 지식인은 사라지고, 생활을 위해 기계적으로 일하는 보통의 월급쟁이 교수들만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린다. “대학의 이념은 생동하는 정신이며, 하나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대학의 목적은 근원적인 지적 욕구의 실현에 있다. 즉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전수하는 것이다. 대학은 그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한다”라는 칼 야스퍼스의 대학의 이념을 되새기며, 대학원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세워야 할 때다.

둘째, 대학원교육의 혁신은 대학원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혁신하는 데에서 출

발해야 한다. 현재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친 인재들도 일부 만 대학에 머물 뿐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지식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도의 지적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 속에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대학원교육을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생각하고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온 이유다.

셋째, 대학원교육의 혁신은 “학생 성공(student success)”을 모든 정책과 제도의 중심에 두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 대학 본부는 물론 교수는 ‘다양성’, ‘맞춤형’ 관점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대학 안과 밖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돌봐주고, 그리고 이들의 미래가 행복하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이어야 한다. 이는 이들에게 상상력과 호기심,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며,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는 길이다.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은 바로 이들 고급우수 인재들을 통해 나올 수 있다.

넷째, 대학원교육의 혁신은 대학, 전공별 비전과 특성에 기반한 “인재상”을 세우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학, 전공별로 미래와 사회를 위해 한 대학원생을 어떠한 인재로 키워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새로운 가치와 영향력을 담은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배출해나가도록 하는 인재상 중심의 선순환적 프레임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로 독자적인 인재상 중심으로 학부교육을 혁신시켜온 “잘 가르치는 대학” 사업의 대학원 버전인 “G-ACE” 사업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이 사업은 정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며, 대학 및 전공 단위에서 스스로의 인식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인재상은 전공별 졸업생들의 학문적, 사회적 활동을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조정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대학원교육의 혁신은 교육의 내용, 운영 및 지원방식을 재정립(reset)하는 일이다. 이제는 일반대학원도 학문후속세대를 키우는 일과 더불어 다양하게 사회로 진출하는 인재들을 ‘맞춤형’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제는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일과 더불어 일상에서의 기본역량이 되는 ‘transferable skills’, ‘soft skills’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대학원생들의 학문적 역량을 키우게 하며, 또한 이들의 진로를 넓혀주는 일이며, 기업 등 사회로부터 더욱 인정받게 할 것이다. 물론 그 내용과 수준은 글로벌 관점에서의 수월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음 세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섯째, 대학원교육의 혁신은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전제로 삼는 일이다. 미국 조지아 텍(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기존 등록금 1/7 정도로 석사학위 프로그램 제공, MOOCs, ‘미네르바 스쿨’의 등장, 애리조나주립대학의 온라인 교육 전략 등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최첨단 기술에 의한 에듀테크의 활용에도 대응해야 하며,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기 시작한 Z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대학원 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스마트폰에 담아가야 한다.

일곱째, 대학원교육의 혁신은 정부, 기업, 대학 그리고 교수, 학생 간 수평적 협업 관계를 위한 환경과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일이다. 모든 관련 구성원들이 더욱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공동 전략을 세우고 상호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대학원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현실화해나가는 일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원, 대학원교육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먼저 스스로 인재 활용에 필요한 직무성격, 요구되는 역량, 그 수준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대학들의 내부노력을 깊이 이해하며, 대학원교육에서 담아가야 할 소양과 역량들이 무엇이어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외 우수인재들이 오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시급성을 공유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덟째, 대학원교육의 혁신은 현재의 관심영역으로부터 벗어나 그 활동 범위를 크게 넓히는 일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야 하며, 100세 시대의 평생교육은 정규 교육화 되어야 한다. 이제는 대학의 모든 일상이 ‘국제화’되어야 하며, 글로벌 커뮤니티의 여러 대학, 기관들과의 협력과 공동 노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제는 개별대학 중심에서 글로벌 관점에서 대학연합(University Federation)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 대학, 대학원들이 연합하여 자율성을 키우며, 새로운 철학과 싱크탱크를 구성하여 미래를 향한 변화의 방향, 변화의 힘을 지속적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아홉째, 대학원교육의 혁신은 ‘평가의 혁명’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교수평가제도로는 교수들이 교육에 관심 가지기 어렵고, 본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대학원, 대학원교육에 대한 성과는 몇 개의 평가 지표로 이해할 수 없다. 보다 본질적 관점에서의 생태계를 읽고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측정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학원교육에 대한 질적 성과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

는 도구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대학다운 대학, 대학원다운 대학원을 만들어 대학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다.

대학원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의 산실이자 고급 인재 양성의 중추적 기관으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학부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그 발전을 견인해왔다면, 대학원 졸업생들이 새 시대 국가와 사회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지적역량과 지혜를 통해 국가, 지구촌에 지속가능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어야 하며, 미래 다음 세대에 희망과 꿈, 행복을 주는 일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고희진 외(2018), 청년과학자의 연구 및 학업 관련 애로요인 분석, 한국연구재단 Issue Report 2018_09호
- [2] 교수신문(2018. 7. 9), 왜 연구자 꿈나무들은 외국으로 떠나는가?
- [3] 민경찬 외(2010), 대학원 교육 선진화 방안 연구, 고등교육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7-50
- [4] 민경찬(2010), 대학원 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대학교육, 167호
- [5] 민경찬(2015), 외국 대학원 교육의 발전방향(사례) 대학교육, 187호
- [6] 박기범(2018), 대학의 연구중심 특성화를 위한 이공분야 대학지원 프로그램. 기획 연구, 한국연구재단
- [7] 유한구 외(2017), 국내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8] 유한구 외(2017), 국내석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9] 폴라 스테판(인윤희 역)(2012), 경제학은 어떻게 과학을 움직이는가, 글항아리
- [10] Leonard Cassuto(2015), Graduate School Mess, Harvard University Press
- [11] Commission on the Future of Graduate Education(2010), The Path Forward, Council of Graduate Schools & Educational Test Service(ETS)
- [12] Council of Graduate Schools(2011), Steps Taken on the Path Forward, A Paper from the Council of Graduate Schools
- [13] Council of Graduate Schools(2014), Presentations of 2014 54th Annual Meeting
- [14] Julia D. Kent(Ed.)(2012), Graduate Education for Global Career Pathways, Council of Graduate Schools

[15] Tamar Lewin(2013), Master's Degree is New Frontier of Study Online, The New York Times, Aug. 17, 2013

[16] Rafael Rief(2013), Online learning will make college cheaper. It will also make it better, Time, Oct. 7, 2013

[17] Randall Stross(2017), A Practical Education, Redwood Press

기획주제 1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발표: 이정미(충북대)

토론: 이석열(남서울대)

백정하(대교협)

기획주제 1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이정미(충북대)
 장덕호(상명대)
 한경희(연세대)
 이길재(충북대)
 임소현(한국교육개발원)

I. 서론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기술 혁신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면서 탁월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대학원의 존재와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 대학원의 탁월한 연구력 확보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 개발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의 견인차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중심대학 확보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이유 역시, 그러한 경쟁력 있는 대학들, 특히 그들이 보유한 대학원이 원천적 지식과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관점에서 지식과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 내지 그러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일상화된 오늘날의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원천적 지식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승자만이 살아남는 혹독한 경쟁의 장인 것이다.

향후의 대학원 발전 방향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원천적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 특히 일반대학원은 더 이상 보편적 지식과 범용형 인재의 재생산을 위한 장에 머무르기 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와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기관으로서의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의 여건 및 역량은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가 경제규모나 국가경쟁력

* 이 논문은 「이정미 외(2013).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지수 대비 지식 및 기술개발 역량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세계 12위이며, IMD 국가경쟁력지수는 26위이나, 2016년 기준 SCI 논문수는 세계 12위, 2012~2016년 피인용상위 1% 논문은 세계 15위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원)의 경쟁력이 하위권이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원의 경쟁력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대학원의 여건 및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은 물론이고 학술적 노력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물론 지난 십 수년 간 대학원 연구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BK 등과 같은 대학원 차원의 인력양성사업의 수행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회가 수요로 하는 석·박사 인력의 공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부분 학부교육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과 아울러 학술적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실태에 관한 종합적·구체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원 제도의 전반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학원 제도에 관한 문제점들로서 대학원 유형별 특성화 및 기능의 미확립(서정현 외, 2006:31; 송창용 외, 2012; 신현석 외, 2005), 대학원 과정의 질 관리 미흡 및 학위의 낮은 국제적 통용성(반상진 외, 2004; 서정현 외, 2006:31; 송창용 외, 2012; 신현석, 2011), 대학원 학위체계의 사회적 적합성 미흡, 인력수요 기반 효율적 인력양성 체제 구축 미흡(서정현 외, 2006)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일반대학원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원의 현 실태에 관한 구체적·체계적 데이터가 확보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분석 틀을 토대로 한 광범위한 데이터의 조사 및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터하여 본 연구는 대학원의 여건, 교육 및 연구 운영 실태에 관한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대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일반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체계는 무엇인가?
- 둘째, 일반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실태는 어떠한가?
- 셋째, 일반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과정의 특성

대학원 교육 및 연구는 학부교육과는 다른 문화적·제도적 특수성과 교육 및 연구 환경 등의 특수성이 나타난다(송창용 외, 2012; 임희진 외, 2016).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과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의 핵심적 구성 주체는 학생과 교수이며, 교육 및 연구의 과정에서 상호작용 및 협업한다. 학부교육은 교수의 일방적 강의를 통한 지식 및 정보의 전달이 주가 되지만, 대학원 교육은 학생과 교수의 상호작용이 주가 되며, 특히 연구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는 협업을 통해 전공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게 된다(전종희, 2013).

둘째, 대학원은 단설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학부와 같은 수준의 내부 조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조직 운영이나 자원 배분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이다(송창용 외, 2012).

셋째, 대학원 교육은 교육과 연구가 병행되는 교육과정이다(허준행 외, 2012). 대학원 교육의 과정은 대학원생이 전공을 선택하고, 전공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 학습하여 학위 논문의 연구를 통해 창조적인 지식의 생산자로서 전문성을 획득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Turner et al, 2002; 임희진 외, 2016에서 재인용).

넷째, 학부 교육이 대중교육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은 학문적 수월성, 전공 분야의 산업수요 반영 등과 같은 목적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대학원 교육이 교수 양성 뿐 아니라 산업 분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엄미정 외, 2012).

다섯째, 대학원 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지식과 연구방법론에 관한 지식 심화과정을 통해 논문주제를 심화시키도록 돕는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야 하지만, 석사와 박사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과목 간의 차별성 부족, 강좌 간의 연계성의 부족, 교육과정의 비체계성, 학생의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강좌의 개설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임희진 외, 2016).

2. 선행연구 분석

그 동안 고등교육 연구가 대부분 대학 단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

학원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지식 및 역량을 갖춘 석박사 고급인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서 강조됨에 따라 최근 대학원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되고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원 제도의 전반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반상진 외, 2004; 서정현 외, 2006; 김영섭 외, 2010; 신현석, 2011; 송창용 외, 2012; 임한조 외, 2012).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구의 내용 면에서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실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원 제도의 전반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대학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원의 현 실태에 관한 구체적·체계적 데이터의 확보 및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의 분석 수준에 있어서 대학원의 특성별(설립유형, 소재지, 규모, 계열, 대학원 유형 등) 하위집단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간의 대부분의 연구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유형 간 비교 또는 각 대학원 유형 내에서 단순히 계열 간 비교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원 유형 내에서 대학원 특성별 하위집단 간 차이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 수준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정책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국내 대학원 연구의 주된 동향은 향후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교육과 연구의 이분법적인 논의를 벗어나 교육과 연구의 통합 또는 연계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육-연구의 연계는 오랫동안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며(Clark, 1997), 교육-연구 연계 방식(Ramsden & Moses, 1992), 교육-연구 연계 모델(Schimank & Winners, 2000)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수업, 연구, 논문지도 등이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전반적인 교육 및 연구 경험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원 교육은 고등교육 연구 영역에서 지속적 관심을 받아왔으며(Baird, 1990; Berelson, 1960; Brink, 1999), 대학원 교육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대학원생을 분석단위로 하여 대학원생의 성공적 학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집중되어 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틀을 구안하였다. 이 분석 틀은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투입, 과정, 산출(성과)로 구성된 체제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투입 차원에서는 대학원의 구성주체로서 학생과 교수, 대학원을 움직이는 대학원 조직 및 거버넌스 요소가 포함되었다. 과정 차원에서는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과정으로서 교육과정, 수업 및 논문지도, 연구, 교육 및 연구의 연계 등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끝으로 산출 및 성과 차원에서는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성과로서 학위의 질, 취업 및 연구성과, 만족도 요소가 포함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분석 틀

구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항목
투입	구성주체	학생	입학 자원의 질	- 동일 대학원 진학 여부
				- 학부 전공과의 일치 여부
		- 학업과 직장 병행 여부		
		- 대학원 입학 경쟁 여부		
		- 대학원 전공학생의 우수성		
		학비 충당	- 학비 마련 방법 및 비중	
	교수	강의 및 학생지도의 여건	- 대학원 지도학생 수	
			- 대학원 지도학생 수의 적정성	
		대학원의 우수성	- 우수한 대학원생 확보 노력	
			- 대학원 전공학생의 우수성	
조직 및 거버넌스	대학원 조직	전담 대학원 행정 조직 여부	- 대학원 전담 행정조직	
		대학원 소속 교수 여부	- 대학원 소속 교수 여부	
	학사운영 및 거버넌스	대학원 전공 시설의 자율성	- 대학원 전공 시설의 자율성	
		대학원 정원 조정의 주도권	- 대학원 정원 조정의 주도권	
과정	교육 및 연구의 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적정성	- 전문성 함양 교과목 개설
			- 방법론 관련 충분한 교과목 개설	
			- 대학원 비교과 프로그램	
			- 진로개발 및 지도 프로그램	
			- 글로벌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항목		
			교육과정의 수요자 요구 반영 노력	- 사회적 요구 반영 노력 - 학생 요구 반영 노력		
			교과목의 전문성 및 학문적 연구능력 개발	- 전공분야 지식 심화 - 충분한 사전준비/독서요구 - 연구방법론적 지식 배양 - 논문주제 심화 발전 도움		
		수업 및 논문지도	수업(교육) 준비의 질	- 수업준비의 충실성		
			논문지도의 질	- 논문지도의 충실성		
		연구 (프로젝트) 참여	학생의 연구 비중	- 교육 대 연구의 시간 비중 - 연구과제의 수업 지장 정도 - 연구비의 충분성		
			교수의 연구 비중	- 교육 대 연구 비중		
		교육 및 연구의 연계	교육 및 연구의 연계	- 교육 및 연구의 연계 노력		
		산출 (성과)	교육 및 연구의 성과	학위의 질	학위의 질	- 논문심사 탈락률 - 졸업논문대체수단
					취업 및 연구 성과	전공 취업률 연구 성과
				만족도	교육여건 만족도	- 공간/시설/장비의 충분성 - 학비(장학금) 지원의 충분성 - 도서관(충분한 장서 보유) - 행정 서비스 제공
					교육과정 만족도	- 전문성 개발의 충분성 - 교육과정 개발 노력의 지속성 - 타전공과의 융합 및 연계 노력
					교육 만족도	- 충실한 교수강의 - 체계적인 논문지도 - 지도교수와의 관계
					연구 만족도	- 문제해결능력 교육 - 연구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지식 - 연구 참여경험의 만족도 - 논문주제/논문진행시 연구경험의 기여도

2. 조사 및 분석방법

분석틀에 따라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운영 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대학원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의 내용은 개인배경 문항, 대학원 입학, 대학원 교육-연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교수대상 설문조사의 내용은 개인배경 문항, 대학원의 질, 대학원의 조직 및 거버넌스, 대학원의 교육-연구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로 하위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학위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대학원 유형(연구중심대학, 국립대학, 사립-교육중심대학, 사립-연구중심대학) 등과 같은 대학특성별 집단 간 평균차이검정(X^2 검정 및 t/F 검정)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학생용 및 교수용 설문조사의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는 <표 2>와 같다. 응답자 수는 학생용 설문조사의 경우 총 2,602명, 교수용 설문조사의 경우 총 620명이다.

<표 2> 조사 배경변인별 응답자 분포

변인	구분	학생		교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위 과정	석사과정	1,449	55.7	-	-
	박사과정	626	24.1	-	-
	석·박사 통합과정	527	20.3	-	-
직급	조교수	-	-	126	20.3
	부교수	-	-	157	25.3
	정교수	-	-	335	54.0
	연구교수	-	-	2	.3
성별	남	1,560	60.0	533	86.0
	여	1,042	40.0	87	14.0
설립 유형	국·공립	1,018	39.1	251	40.5
	사립	1,584	60.9	369	59.5
소재지	수도권	1,494	57.4	269	43.4
	비수도권	1,108	42.6	351	56.6
규모	대규모(재학생 1만명 이상)	1,880	72.3	409	66.0
	중규모(재학생 5천 ~ 1만명 미만)	453	17.4	139	22.4
	소규모(재학생 5천명 미만)	269	10.3	72	11.6

1) 일반대학원의 유형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계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변인	구분	학생		교수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공 계열	인문·사회	652	25.1	163	26.3
	공학	1,323	50.8	245	39.5
	자연	451	17.3	128	20.6
	의약	98	3.8	59	9.5
	예술·체육	78	3.0	25	4.0
대 학 원 유형 ¹⁾	연구중심대학	238	9.2	53	8.5
	국립대학	861	33.4	207	33.4
	사립-교육중심대학	277	10.8	171	27.6
	사립-연구중심대학	1,198	46.5	189	30.5
전체		2,602	100.0	620	100.0

IV. 일반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실태

1. 대학원의 구성 주체

가. 대학원생

1) 입학자원의 질은 우수한가?

졸업한 대학과 동일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 중 1,567명(60.9%)이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06명(39.1%)이었다.

Analysis: HCA)을 활용하여 대학원을 유형화하였다. 분석을 위해 소재지, 설립유형, 학부학생수, '13년 정시 지원가능 수능표준점수, 등록 대학원생수, 이공계대학원생의 비율, 대학원 등록률, 대학원 평균 등록금, 대학원 취업률, 대학원생1인당 장학금 등과 같은 대학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군집 간 거리 매트릭스(Proximity Matrix) 계산은 두 집단에서 가능한 모든 쌍의 거리의 평균을 두 집단의 거리로 규정하는 방법인 Average Linkage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각 변인이 대학들 간 거리를 계산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들을 표준화시킨 후 위계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_{KL} = \frac{1}{n_K n_L} \sum_{i \in CK} \sum_{j \in CL} d(x_i, x_j)$$

분석 결과, 연구중심대학(KAIST, UNIST, POSTECH, GIST, 서울대), 거점 및 지역 국립대학, 연구중심 사립대학, 교육 중심 사립대학, 신학대학의 5개 유형으로 유형화되었다. 5개 유형 중 대학의 수가 매우 적은 신학대학을 제외한 4개 유형이 대학원 유형으로 활용되었다.

<표 3> 학부와 대학원 소속대학의 일치 유무

변인	구분	예	아니오	전체	X ²	유의확률
학위 과정	석사과정	887(61.9%)	545(38.1%)	1,432(100%)	42.648***	.000
	박사과정	315(51.1%)	302(48.9%)	617(100%)		
	석·박사통합과정	365(69.7%)	159(30.3%)	524(100%)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109(45.8%)	129(54.2%)	238(100%)	62.926***	.000
	국립대학	599(69.6%)	262(30.4%)	861(100%)		
	사립-교육중심대학	183(66.1%)	94(33.9%)	277(100%)		
	사립-연구중심대학	676(56.5%)	521(43.5%)	1,197(100%)		
전체		1,567(60.9%)	1,006(39.1%)	2,573(100%)		

***p<.001

대학원 전공과 학부 전공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 중 1,981명(77.1%)이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589명(22.9%)이었다. 최근 융복합 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교육, 역량개발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학부와 대학원의 전공이 다른 것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추세로 보인다.

<표 4> 학부와 대학원 전공의 일치 유무

변인	구분	예	아니오	전체	X ²	유의확률
학위 과정	석사과정	1,114(77.8%)	317(22.2%)	1,431(100%)	72.317***	.000
	박사과정	410(66.5%)	207(33.5%)	617(100%)		
	석·박사통합과정	457(87.5%)	65(12.5%)	522(100%)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173(72.7%)	65(27.3%)	238(100%)	26.254***	.000
	국립거점대학	681(79.1%)	180(20.9%)	861(100%)		
	사립-교육중심대학	183(66.1%)	94(33.9%)	277(100%)		
	사립-연구중심대학	944(79.1%)	249(20.9%)	1,194(100%)		
전체		1,981(77.1%)	589(22.9%)	2,570(100%)		

p<.01, *p<.001

입학에서 수료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학업에만 전념했는지 학업과 직장을 병행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2,129명(82.9%)은 학업에만 전념 했다고 응답했으며, 440명(17.1%)은 학업과 직장을 병행했다고 응답하였다. 우수한 대학원생들이 장학금 부족으로 인해 온전히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

원이 필요하다.

<표 5> 입학-수료 학업과 직장병행 여부

변인	구분	학업 전념	학업 직장 병행	전체	X ²	유의확률
학위 과정	석사과정	1,188(83%)	243(17%)	1,431(100%)	137.933***	.000
	박사과정	435(70.6%)	181(29.4%)	616(100%)		
	석·박사통합과정	506(96.9%)	16(3.1%)	522(100%)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28(95.8%)	10(4.2%)	238(100%)	145.665***	.000
	국립대학	688(79.9%)	173(20.1%)	861(100%)		
	사립-교육중심대학	168(60.9%)	108(39.1%)	276(100%)		
	사립-연구중심대학	1,045(87.5%)	149(12.5%)	1,194(100%)		
전체		2,129(82.9%)	440(17.1%)	2,569(100%)		

***p<.001

대학원 입학 시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1,708명(66.6%)로서 약 33%는 대학원 입학 경쟁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입학시 실질적인 경쟁 유무

변인	구분	예	아니오	전체	X ²	유의확률
학위 과정	석사과정	919(64.3%)	511(35.7%)	1,430(100%)	24.140***	.000
	박사과정	460(74.7%)	156(25.3%)	616(100%)		
	석·박사통합과정	329(63.3%)	191(36.7%)	520(100%)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185(77.7%)	53(22.3%)	238(100%)	31.054***	.000
	국립대학	541(62.8%)	320(37.2%)	861(100%)		
	사립-교육중심대학	163(58.8%)	114(41.2%)	277(100%)		
	사립-연구중심대학	819(68.8%)	371(31.2%)	1,190(100%)		
전체		1,708(66.6%)	858(33.4%)	2,566(100%)		

*p<.05, ***p<.001

함께 대학원에 입학한 다른 학생들이 해당 전공분야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평균이 3.77로 나타난 바, 대학원생들은 비교적 함께 입학한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이 3.85, 대학원 유형에서는 연구중심대학이 3.9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대학원 전공학생의 우수성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32	3.73	.887	3.894*	.020 (석·박사통합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616	3.80	.855		
	석·박사통합과정	524	3.85	.784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3.98	.874	14.664***	.000 (연구중심,사립-연구 중심>국립거점,사립- 교육중심, 국립거점>사립-교육중심)
	국립대학	861	3.72	.863		
	사립-교육중심대학	276	3.53	.871		
	사립-연구중심대학	1,197	3.83	.839		
전체		2,572	3.77	.861		

*p<.05, **p<.01, ***p<.001

2) 대학원생의 학비 마련은 가능한가?

대학원 학비 마련에 대한 질문에서 연구과제 참여 인건비가 26.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학금(조교장학금 등 기타 모든 장학금 포함, 25.2%), 가족지원 17.1%, 직장의 월급 16.4%, 학자금대출 12.1%,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1.7%, 기타 1.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인건비에 의한 등록금 보조보다는 장학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표 8> 학비에 대한 각 항목별 비중

학비 마련 방법		비율(%)
본인부담	직장의 월급	16.4
	연구과제 참여 인건비	26.1
가족 지원(부모, 형제, 배우자 등의 지원)		17.1
학자금 대출		12.1
장학금(조교장학금 등 기타 모든 장학금 포함)		25.2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1.7
기타		1.4
전체		100

나. 교수

1) 지도학생 수는 적정한가?

지도학생 수는 전체 평균 5.88로 나타난 바, 교수들은 평균 6명 정도의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각 요인별 평균으로 내국인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각각 2.97, 2.24, 외국인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각각 0.39, 0.28로 나타난 바, 지도 학생 중 국내 석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내 박사, 국외 석사, 국외 박사 순이었다.

<표 9> 지도학생 수

변인	구분	내국인		외국인		총 평균 지도학생 수				
		석사	박사	석사	박사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3.42	5.06	.55	.60	53	9.62	6.383	16.413***	.000 (연구중심>국립거 점, 사립-교육중심, 사립-연구중심>국립 거점, 사립-교육중심)
	국립대학	2.56	1.48	.41	.29	207	4.74	4.533		
	사립-교육중심대학	2.73	1.33	.33	.15	171	4.53	6.538		
	사립-연구중심대학	3.51	3.12	.39	.29	189	7.31	6.440		
전체		2.97	2.24	.39	.28	620	5.88	6.112		

***p<.001

지도학생 수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전체 평균이 2.87로 나타난 바, 교수들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규모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 교수에 따라서는 인식 차이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지도학생수의 적정성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3.15	1.099	3.280*	.021 (사후검증 미검출)
	국립대학	207	2.72	1.013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2.84	1.065		
	사립-연구중심대학	188	2.96	.972		
전체		619	2.87	1.029		

*p<.05, **p<.01

2) 대학원 전공은 우수한가?

대학원 전공학생의 우수성에 대해 전체 평균은 3.33으로 나타난 바, 교수들은 현재 재직 중인 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른 국내 대학원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중심대학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

음이 사립-연구중심대학 3.70, 국립대학 3.06, 사립-교육중심대학 2.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대학원 전공 학생의 우수성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4.23	.669	53.583***	.000 (연구중심>국립,사립- 교육중심,사립-연구중 심 사립-연구중심> 국립,사립-교육중심)
	국립대학	207	3.06	.828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2.98	.815		
	사립-연구중심대학	189	3.70	.805		
전체		620	3.33	.902		

*p<.05, ***p<.001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교수 대상 질문에 다중 응답한 교차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한 것이 '학부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28%, 다음이 '수업 외에도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권유한다' 24%, '연구실 학부생 인턴십 등 대학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19.7%, '장학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학생들, 선배들을 통해 설득한다' 18.6%,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응답도 9.7%로 나타났다.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12>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구분	구분	특별히 없다	학부 수업을 통해 학생들 에게 정보 제공	수업 외에도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권유	장학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학생, 선배들을 통한 설득	연구실 학부생 인턴십 등 대학원에 대한 경험 제공	전체
	국립거점대학	52(13.5%)	108(28.1%)	85(22.1%)	68(17.7%)	71(18.5%)	384(100%)
	사립-교육중심대학	21(6.1%)	99(28.8%)	99(28.8%)	68(19.8%)	57(16.6%)	344(100%)
	사립-연구중심대학	35(9.4%)	96(25.9%)	82(22.1%)	73(19.7%)	85(22.9%)	371(100%)
	전체	117(9.7%)	337(28.0%)	289(24.0%)	224(18.6%)	237(19.7%)	1204(100%)

2. 조직 및 거버넌스

가. 대학원 조직

1) 독립적인 대학원 전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가?

소속 대학에 대학원 교육 제도 및 연구정책 관련 제도를 전담하는 학부와 분리된 별도의 행정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 460명(74.2%)이었고, “없다”고 한 경우는 160명(25.8%)이었다. 사립-교육중심대학의 경우 138명(80.7%)로 별도의 행정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립-연구중심대학 146(77.2%), 국립대학 145(70.0%), 연구중심대학 31(5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대학원 전담 행정조직 보유 유무

변인	구분	있다	없다	전체	X ²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31(58.5%)	22(41.5%)	53(100%)	12.581**	.004
	국립대학	145(70.0%)	62(30.0%)	207(100%)		
	사립-교육중심대학	138(80.7%)	33(19.3%)	171(100%)		
	사립-연구중심대학	146(77.2%)	43(22.8%)	189(100%)		
전체		460(74.2%)	160(25.8%)	620(100%)		

*p<.05, **p<.01, ***p<.001

별도의 전문조직이 있더라도 대학원 행정의 독자적 전문성을 갖춘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경우, 실제 운영은 전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합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대학원이 우리나라 대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대학원을 교육 보다는 연구의 장소로 보는 인식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대학원 교육과 연구, 행정의 질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대학원 소속 교수를 보유하고 있는가?

소속 전공에는 학부와 무관한 별도의 대학원 소속 교수가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 63명(10.2%)이었고, “없다”고 한 경우는 전체 557명(89.8%)이었다. 기본적으로 학부를 기반으로 대학원이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원 소속 교수의 범주가 발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14> 전공 내 대학원 소속 교원 유무

변인	구분	있다	없다	전체	X ²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9(17.0%)	44(83.0%)	53(100%)	6.738	.081
	국립대학	13(6.3%)	194(93.4%)	207(100%)		
	사립-교육중심대학	19(11.1%)	152(88.9%)	171(100%)		
	사립-연구중심대학	22(11.6%)	167(88.4%)	189(100%)		
전체		63(10.2%)	557(89.8%)	620(100%)		

*p<.05

나. 학사운영 및 거버넌스

1) 대학원 전공 신설의 자율성이 있는가?

대학원 전공 신설의 자율성에 대한 질문의 전체 평균은 2.18로 나타난 바, 교수들은 현재 재직 중인 대학원 전공(학과)의 신설이 본부 또는 학부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중심대학이 1.7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이 국립대학 2.14, 사립-연구중심대학 2.23, 사립-교육중심대학 2.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대학원 전공(학과) 신설의 자율성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1.72	.841	4.829**	.002 (사립-교육중심, 사립-연구중심> 연구중심)
	국립대학	207	2.14	.999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2.30	1.051		
	사립-연구중심대학	188	2.23	1.002		
전체		619	2.18	1.012		

*p<.05, **p<.01

2) 대학원 정원 조정의 주도권이 있는가?

대학원 정원 조정의 주도권에 대한 질문의 전체 평균은 2.01로 나타난 바, 교수들은 현재 재직 중인 대학원 정원의 조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저점대학 1.8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다음이 연구중심 1.91, 사립-연구중심대학 1.99, 사립-교육중심대학 2.1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정원은 대학에 있어서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학교 운영 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의 경우, 대학의 입장에서는 재원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비교

적 쉽게 개설하고 운영하기를 원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그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6> 대학원 정원 조정의 주도성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1.91	1.114	3.534*	.015 (사립-교육중심 >국립거점)
	국립거점대학	207	1.89	.793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2.19	.982		
	사립-연구중심대학	188	1.99	.899		
전체		619	2.01	.916		

*p<.05, **p<.01

3) 대학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있는가?

대학원 예산 편성의 자율성에 대한 질문의 전체 평균은 1.96으로 나타난 바, 교수들은 현재 재직 중인 대학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이 연구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 배정이나 활용의 특성이 학부와 차별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7> 대학원 예산 편성의 자율성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2.02	.990	2.000	.113
	국립대학	207	1.85	.789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2.07	1.015		
	사립-연구중심대학	188	1.97	.846		
전체		619	1.96	.893		

**p<.01

3. 교육 및 연구의 과정 및 성과

가. 교육과정

1) 교육과정은 적정한가?

소속 전공에 학위과정 동안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3.63의 평균을 나타낸 바, 대학원생들은 교과목 개설 부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에서는 석사과정이 가장 높은 3.67의 평균을 나타냈는데, 이는 석사와 박사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에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²⁾ 대학원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

<표 18> 전공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과목 개설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29	3.67	.912	4.582*	.010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617	3.61	1.008		
	석·박사통합과정	524	3.53	.922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3.47	1.085	5.095**	.002 (국립거점>연구중심)
	국립대학	861	3.71	.897		
	사립-교육중심대학)	276	3.56	.965		
	사립-연구중심대학	1,195	3.62	.927		
전체		2,570	3.63	.939		

*p<.05, **p<.01

소속 전공에 학위과정동안 연구할 이슈를 탐색하고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 관련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3.54의 평균을 나타낸 바, 대학원생들은 방법론 관련 교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는 점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원생 면담 결과

<표 19> 방법론 관련 교과목 개설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3.26	1.116	11.930***	.000 (국립거점> 사립-연구중심 국립거점,사립-교육중심 사립-연구중심>연구중심)
	국립대학	861	3.66	.930		
	사립-교육중심대학	276	3.60	.939		
	사립-연구중심대학	1,192	3.50	.955		
전체		2,567	3.54	.967		

p<.01, *p<.001

소속 전공에서 운영되는 대학원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있다”고 한 경우는 488명(78.7%)이었고, “없다”고 한 경우는 132명(21.3%)로 대학원 비교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연구중심대학이 52(98.1%)로 가장 높았고, 사립-연구중심대학 157(83.1%), 사립-교육중심대학 130(76.0%), 국립거점대학 149(7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대학원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유무

변인	구분	있다	없다	전체	X ²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2(98.1%)	1(1.9%)	53(100%)	20.380***	.000
	국립대학	149(72.0%)	58(28.0%)	207(100%)		
	사립-교육중심대학	130(76.0%)	41(24.0%)	171(100%)		
	사립-연구중심대학	157(83.1%)	32(16.9%)	189(100%)		
전체		488(78.7%)	132(21.3%)	620(100%)		

p<.01, *p<.00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원생을 양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대해 다중응답한 교차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해외 학회 발표지원, 해외교환학생교류 등 국제적 경험 제공’32.9%, 다음이 ‘해외 기관과의 교류(해외 국제 세미나 참여, 해외 학자 초빙 등)’30.5%, ‘외국 대학원과 공동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12.9%, ‘해외 학문 및 문화에 대한 탐색활동 정례화’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응답도 13.2%로 나타났다.

<표 2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생 양성을 위한 노력

구분		해외기관 과의 교류	해외 학문 및 문화에 대한 탐색활동 정례화	외국 대학원과 공동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운영	해외 학회 발표지원, 해외교환학 생교류 등 국제적 경험 제공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전체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45(35.4%)	12(9.4%)	23(18.1%)	44(34.6%)	3(2.4%)	127(100%)
	국립대학	109(30.6%)	37(10.4%)	36(10.1%)	127(35.7%)	47(13.2%)	356(100%)
	사립-교육중심대학	64(25.8%)	29(11.7%)	15(6.0%)	77(31.0%)	63(25.4%)	248(100%)
	사립-연구중심대학	129(31.6%)	42(10.3%)	73(17.9%)	127(31.1%)	37(9.1%)	408(100%)
전체		347(30.5%)	120(10.5%)	147(12.9%)	375(32.9%)	150(13.2%)	1,153(100%)

소속 전공에 대학원생 진로개발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15명(34.7%)였고,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05명(65.3%)로 나타났다. 대학원 진로개발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대학원생 진로 지도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표 22> 대학원생 진로개발 및 지도관련 프로그램 운영 유무

변인	구분	있다	없다	전체	X ²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1(39.6%)	32(60.4%)	53(100%)	11.173*	.011
	국립대학	62(30.0%)	145(70.0%)	207(100%)		
	사립-교육중심대학	50(29.2%)	121(70.8%)	171(100%)		
	사립-연구중심대학	82(43.4%)	107(56.6%)	189(100%)		
전체		215(34.7%)	405(65.3%)	620(100%)		

*p<.05, **p<.01

2) 교육과정에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교육과정 개발 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대하여 다중응답한 교차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업계의 수요와 동향을 파악한다’35.8%, 다음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정기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20.5%,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산업계 인사를 참여시킨다’11.5%, ‘기타’4.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응답도 27.5%로 나타났다. 대학원 교육에서 산업 동향이나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23> 교육과정 개발 시 사회적 요구 반영을 위한 노력

구분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정기적으로 산업계의 의견 수렴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산업계 인사참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업계의 수요와 동향 파악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기타	전체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6(10.3%)	6(10.3%)	16(27.6%)	23(39.7%)	7(12.1%)	58(100%)
	국립대학	49(19.1%)	20(7.8%)	94(36.7%)	84(32.8%)	9(3.5%)	256(100%)
	사립-교육중심대학	44(20.4%)	25(11.6%)	84(38.9%)	53(24.5%)	10(4.6%)	216(100%)
	사립-연구중심대학	64(24.2%)	40(15.2%)	90(34.1%)	58(22.0%)	12(4.5%)	264(100%)
전체		163(20.5%)	91(11.5%)	284(35.8%)	218(27.5%)	38(4.8%)	794(100%)

교육과정 개발 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각 문항별 전체 응답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205명(33.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에 대한 학생 의견을 조사한다' 190명(31.0%),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의견을 조사한다' 182명(29.7%),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17명(2.8%)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대학 중심, 교수 중심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지금은 학습자,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조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33.4%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은 새로운 시대의 대학교육의 비전을 생각할 때,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표 24> 교육과정 개발 시 학생들의 요구 반영을 위한 노력

구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견 조사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학생 참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기타	전체	X ²	유의 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0(37.7%)	1(1.9%)	16(30.2%)	14(26.4%)	2(3.8%)	53(100%)	24.242*	.019
	국립대학	54(26.1%)	6(2.9%)	56(27.1%)	85(41.1%)	6(2.9%)	207(100%)		
	사립-교육중심대학	46(26.9%)	7(4.1%)	70(40.9%)	46(26.9%)	2(1.2%)	171(100%)		
	사립-연구중심대학	62(34.1%)	3(1.6%)	48(26.4%)	60(33.0%)	9(4.9%)	182(100%)		
전체		182(29.7%)	17(2.8%)	190(31.0%)	205(33.4%)	19(3.1%)	613(100%)		

*p<.05

3) 교과목은 전문성 및 학문적 연구능력을 개발하는가?

전공 교과목들이 전공분야의 내용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평균 3.92를 나타낸 바, 대학원생들은 전공교과목이 전공분화의 지식을 심화 시켜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전공 교과목들의 전공 분야의 내용에 관한 지식 심화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32	3.94	.757	2.878	.056
	박사과정	616	3.92	.831		
	석·박사통합과정	525	3.85	.765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3.83	.905	2.710*	.044 (사후검증 미검출)
	국립대학	861	3.95	.781		
	사립-교육중심대학	276	3.84	.790		
	사립-연구중심대학	1,198	3.93	.743		
전체		2,573	3.92	.778		

*p<.05

전공 교과목들이 충분한 양의 사전 준비/독서를 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3.85를 나타낸 바, 대학원생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전공 교과목들의 충분한 양의 사전 준비/독서 요구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32	3.90	.877	29.256***	.000 (석사과정,박사과정> 석·박사과정)
	박사과정	616	3.95	.868		
	석·박사통합과정	525	3.59	.896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3.68	.963	6.945***	.000 (국립거점>연구중심 사립-교육중심>연구중 심,사립-연구중심)
	국립대학	861	3.91	.863		
	사립-교육중심대학	276	3.97	.824		
	사립-연구중심대학	1,198	3.81	.899		
전체		2,573	3.85	.888		

***p<.001

전공 교과목들이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적 지식을 충분히 길러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3.65를 나타낸 바, 대학원생들은 이 질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전공 교과목들의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적 지식 배양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32	3.70	.897	12.647***	.000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616	3.68	.956		
	석·박사통합과정	525	3.47	.932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3.34	1.038	16.854***	.000 (사립-교육중심, 사립-연 구중심>연구중심 국립거점> 연구중심, 사립-연구중심)
	국립대학	861	3.78	.888		
	사립-교육중심대학	276	3.72	.852		
	사립-연구중심대학	1,198	3.60	.921		
전체		2,573	3.65	.923		

*p<.05, **p<.01, ***p<.001

전공 교과목들이 자신의 논문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3.73을 나타낸 바, 대학원생들은 전공 교과목이 자신의 논문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논문 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전공 교과목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32	3.78	.914	8.917***	.000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616	3.72	.980		
	석·박사통합과정	525	3.58	.951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3.46	1.108	11.753***	.000 (사립-교육중심, 사립-연 구중심>연구중심 국립거점> 연구중심, 사립-연구중심)
	국립대학	861	3.83	.903		
	사립-교육중심대학	276	3.80	.888		
	사립-연구중심대학	1,198	3.68	.928		
전체		2,573	3.73	.940		

*p<.05, **p<.01, ***p<.001

나. 수업 및 논문지도

1) 수업 준비는 충실한가?

전공 수업을 위해 준비를 충실히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3.69를 나타낸 바, 대학원생들은 전공 수업 준비를 충실히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대학원 수업 준비의 충실성(대학원생)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32	3.72	.805	33.446***	.000 (석사과정,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615	3.81	.840		
	석·박사통합과정	524	3.43	.873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3.50	.904	10.125***	.000 (국립거점·사립·교육중심> 연구중심·사립·연구중심)
	국립대학	861	3.77	.804		
	사립-교육중심대학	275	3.80	.784		
	사립-연구중심대학	1,197	3.63	.851		
전체		2,571	3.69	.838		

p<.01, *p<.001

대학원 수업 준비를 충실히 하느냐는 질문에 교수들은 전체 평균 4.02를 나타낸 바, 교수들은 대학원 수업준비를 충실히 한다고 인식하였다.

<표 30> 대학원 수업 준비의 충실성(교수)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4.21	.661	1.687	.169
	국립대학	207	4.01	.661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3.96	.710		
	사립-연구중심대학	189	4.02	.707		
전체		620	4.02	.690		

2) 논문지도는 충실한가?

논문주제 설정, 적용할 이론 확인, 연구방법 설정, 연구진행 경과에 관해 지도교수의 지도를 충실히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3.90을 나타낸 바,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충실히 잘 받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지도교수 논문지도의 충실성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32	3.90	.949	1.507	.222
	박사과정	614	3.96	.969		
	석·박사통합과정	524	3.86	.966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3.69	1.080	15.843***	.000 (국립거점> 사립-연구중심)
	국립대학	861	4.07	.881		
	사립-교육중심대학	275	3.92	.901		
	사립-연구중심대학	1,196	3.82	.979		
전체		2,570	3.90	.958		

p<.01, *p<.001

반면, 교수를 대상으로 한 논문지도의 충실성에 대한 질문의 전체 평균은 4.25로 나타난 바, 교수들은 대체로 논문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2> 논문지도의 충실성(교수)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4.28	.662	.644	.587
	국립대학	207	4.28	.636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4.19	.697		
	사립-연구중심대학	188	4.27	.634		
전체		619	4.25	.654		

다. 연구 참여

1) 학생의 교육 대비 연구 비중은 적절하며, 연구비는 충분한가?

일주일동안 수업준비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투자한 시간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수업준비를 위해 투자한 시간은 45.91%이었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54.09%로 나타났다.

<표 33> 주간 수업준비와 연구과제 수행 시간 비율

변인	구분	수업준비(%)	연구과제 수행(%)	전체(%)
학위과정	석사과정	49.55	50.45	100
	박사과정	50.22	49.78	100
	석·박사과정	30.61	69.39	100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33.78	66.22	100
	국립대학	47.42	52.58	100

변인	구분	수업준비(%)	연구과제 수행(%)	전체(%)
	사립-교육중심대학	58.53	41.47	100
	사립-연구중심대학	44.39	55.61	100
전체		45.91	54.09	100

연구과제 참여로 인해 수업 준비 및 참여에 지장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2.76으로 나타난 바, 수업 준비 및 참여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거점대학과 사립-교육중심대학이 동일하게 2.54로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구중심대학, 사립-연구중심대학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4> 연구과제 참여가 수업준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22	2.70	1.004	19.736***	.000 (석·박사통합과정> 석사과정,박사과정)
	박사과정	606	2.68	1.084		
	석·박사통합과정	520	3.01	1.037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2.92	1.113	30.634***	.000 (연구중심,사립-연구중심>국립거점, 사립-교육중심)
	국립대학	861	2.54	.946		
	사립-교육중심대학	269	2.54	.998		
	사립-연구중심대학	1,180	2.93	1.058		
전체		2,548	2.76	1.038		

***p<.001

지원받은 인건비나 연구비가 충분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2.44로 나타난 바, 대학원생들은 인건비나 연구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에서 박사과정이 2.2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유형에서는 사립-교육중심대학이 2.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립-연구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국립거점대학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5> 지원받은 인건비 혹은 연구비의 충분성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1,420	2.44	1.088	18.815***	.000 (석사과정>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석사과정,박사과정)
	박사과정	606	2.27	1.048		
	석·박사통합과정	518	2.67	1.049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38	2.47	1.070	7.226***	.000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국립대학	861	2.54	1.088		(연구중심,국립거점, 사립-연구중심> 사립-교육중심)
	사립-교육중심대학	269	2.20	1.010		
	사립-연구중심대학	1,176	2.42	1.079		
전체		2,544	2.44	1.078		

*p<.05, **p<.01, ***p<.001

2) 교수의 교육 대비 연구 비중은 적절한가?

일주일 동안 강의준비 및 강의, 연구수행, 행정업무 및 관련 대외활동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의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평균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강의준비 및 강의로 평균 37.8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수행 37.74%, 행정업무 및 관련 대외활동 24.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주간 강의준비 및 강의, 연구수행, 행정업무 및 관련 대외 활동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 비율

변인	구분	강의준비 및 강의			연구수행			행정업무 및 관련 대외활동		
		N	M	SD	N	M	SD	N	M	SD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32.64	10.543	53	43.30	12.933	53	24.06	13.339
	국립거점대학	207	39.34	13.610	207	37.66	13.208	207	22.52	12.593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41.43	13.201	171	33.71	12.849	171	24.77	13.093
	사립-연구중심대학	189	34.49	12.490	189	39.91	13.895	189	25.13	12.779
전체		620	37.86	13.277	620	37.74	13.589	620	24.07	12.872

라. 교육 및 연구의 연계

1) 교육 및 연구의 연계 노력은 충분한가?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최근의 연구(프로젝트) 및 논문의 내용과 연계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평균이 3.98로 나타난 바, 교수들이 수업 중 최근의 연구 및 논문의 내용을 연계하여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연구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에서 그와 같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표 37> 최근 연구 및 논문내용과 수업내용의 연계를 위한 노력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4.06	.929	1.173	.319
	국립거점대학	207	3.93	.827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3.92	.854		
	사립-연구중심대학	186	4.06	.813		
전체		617	3.98	.840		

*p<.05

4. 교육 및 연구의 성과

가. 학위의 질

1) 학위의 질은 우수한가?

소속 전공의 학위논문심사 평균 탈락률의 전체 평균은 11.38로 나타났다.

<표 38> 학위논문심사 탈락률

변인	구분	N	M	SD	t/F	유의확률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53	11.60	10.732	.288	.834
	국립거점대학	207	11.05	13.854		
	사립-교육중심대학	171	12.13	13.407		
	사립-연구중심대학	170	10.96	12.764		
전체		601	11.38	13.151		

***p<.001

소속 전공에서 학위 취득 조건으로서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수단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2,156(84.1%)가 '아니오'에 응답한 바, 대학원 학위취득 조건으로 졸업논문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인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논문을 써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굳이 학위논문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 예를 들면 졸업 이수에 필요한 교과목 수, 교육과정에서의 성과, 논문 이외의 다른 성과물에 대한 대체 인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재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성의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히 학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산업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려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자칫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한다.

<표 39> 졸업논문 대체 수단 인정여부

변인	구분	예	아니오	전체	X ²	유의확률
학위과정	석사과정	298(20.2%)	1,140(79.8%)	1,429(100%)	44.182***	.000
	박사과정	63(10.2%)	553(89.8%)	616(100%)		
	석·박사통합과정	57(11.0%)	463(89.0%)	520(100%)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24(10.1%)	214(89.9%)	238(100%)	47.670***	.000
	국립거점대학	176(20.4%)	685(79.6%)	861(100%)		
	사립-교육중심대학	67(24.3%)	209(75.7%)	276(100%)		
	사립-연구중심대학	142(11.9%)	1,048(88.1)	1,190(100%)		
전체		409(15.9%)	2,156(84.1%)	2,565(100%)		

p<.01, *p<.001

나. 취업 및 연구 성과

1) 취업률은 우수한가?

소속 전공의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학위과정에서는 석·박사통합과정이 81~100% 이하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율 325(63.5%)를 나타냈으며, 대학원 유형에서는 연구중심대학 133(55.9%)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40> 취업률

변인	구분	20% 이하	21~40% 이하	41~61% 이하	61~90% 이하	81~100% 이하	전체	X ²	유의확률
학위 과정	석사과정	74(5.2%)	109(7.7%)	244(17.2%)	387(27.3%)	606(42.7%)	1,420(100%)	87.710***	.000
	박사과정	40(6.5%)	50(8.1%)	105(17.1%)	151(24.6%)	268(43.6%)	614(100%)		
	석·박사통합과정	11(2.1%)	14(2.7%)	42(8.2%)	120(23.4%)	325(63.5%)	512(100%)		
대학원 유형	연구중심대학	10(4.2%)	17(7.1%)	20(8.4%)	58(24.4%)	133(55.9%)	238(100%)	48.469***	.000
	국립거점대학	43(5.0%)	63(7.3%)	149(17.3%)	246(28.6%)	360(41.8%)	861(100%)		
	사립-교육중심대학	26(9.5%)	23(8.4%)	49(17.8%)	70(25.5%)	107(38.9%)	275(100%)		
	사립-연구중심대학	46(3.9%)	70(6.0%)	173(14.8%)	284(24.2%)	599(51.1%)	1,172(100%)		
전체		125(4.9%)	173(6.8%)	391(15.4%)	658(25.8%)	1,199(47.1%)	2,546(100%)		

*p<.05, **p<.01, ***p<.001

2) 연구성과는 우수한가?

대학원생의 경우 학위 과정 중 본인이 주저자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0.69로 나타났으며, 주로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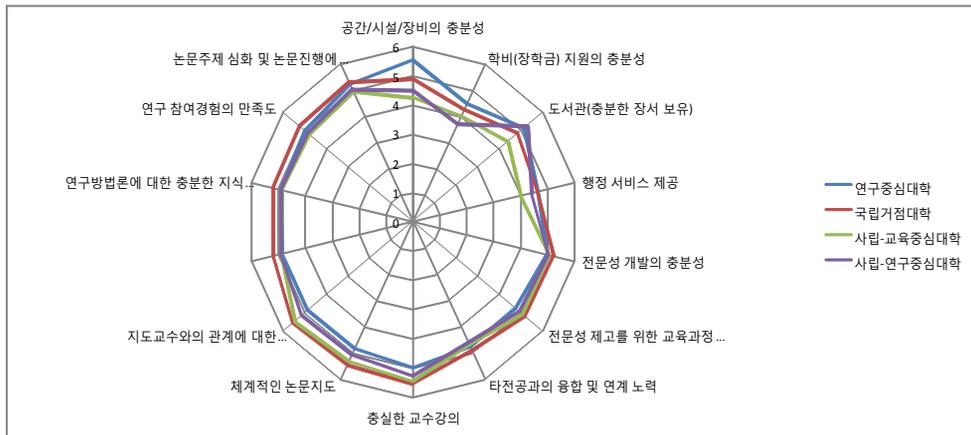
<표 41> 연구성과

변인	구분	국내						국외				총 논문수			
		등재지		등재후보지		미등재지		SCI(E)/S SCI/A& HCI		기타					
		M	SD	M	SD	M	SD	M	SD	M	SD	N	M	SD	t/F
학위 과정	석사과정	.16	.52	.03	.31	.02	.20	.06	.29	.04	.26	1432	.27	.823	122.537***
	박사과정	.71	1.510	.13	.707	.08	.326	.56	1.503	.14	.784	617	1.49	2.702	
	석·박사통합	.24	.744	.02	.143	.03	.353	.55	1.206	.09	.419	525	.88	1.688	
전체		.31	.928	.05	.426	.04	.270	.28	.971	.07	.472	2574	.69	1.721	

***p<.001

다. 만족도

대학원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 및 연구 여건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이 4.72(7점 척도)로,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전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연구중심대학은 각각의 하위 만족도 영역 모두에서 다른 대학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림 1] 대학원 유형별 대학원 만족도 수준

V. 일반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발전방향

가. 대학원의 질적 수준 강화

대학원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연구는 네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첫째, 대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우수성이다. 이 때, 인적 자원은 학생, 신진인력, 직원, 교수까지 포함된다. 미국의 대학원이 20세기 후반 이후 큰 성공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전 세계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미국 대학원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대학원 과정이 그러한 학생을 모집하고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우리나라 대학원들은 대학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충분한 동기와 열정을 갖춘 학생을 모집하는데 크게 성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교수는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통과한 비교적 우수한 인재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슈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대학의 제도적 시스템 내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역량과 행정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시도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원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뛰어난 연구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행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해외 대학 및 연구 인력과의 교류가 활성화된 현실에서 국제화 관련 행정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면,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실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대학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장학금 지원 수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학원생 중 석사의 47%, 박사의 42%만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았다. 하연섭(2012)에 따르면, 미국은 대학원 장학금에서 수업조교(TA), 연구조교(RA),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 31%, 28%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2%, 5%, 17%에 불과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대학원의 질 향상은 대학원 교육 시스템을 통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대학원 지원정책은 대학원을 '연구 성과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시켰다. 교수는 물론이고 신진인력과 학생의 평가 기준도 연구 성과에 의해 좌우된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정량적 논문실적의 급증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는 연구실이 논문 생산 공장으로 변한 곳도 적지 않다. 비교적 SCI 논문을 게재하기 쉬운 분야의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논문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훌륭한 연구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행히도 훌륭한 연구논문이 많은 교

수진이나 연구실에서 교육 역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대학원에서 필수 교과목을 운영할 교수를 찾기가 힘들다”거나 “교수법 개발에 따로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구논문과 관련한 일을 하느라 “수업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대학원이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닌 기본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만들고 있다. 이럴 경우에 대학원 교육은 교수 개인의 특성에, 혹은 연구실 특성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대학원이 나아가야 할 질적 전환으로의 체계적 노력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끝으로 대학원에 대한 평판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원 평판은 결과적으로 우수한 대학원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원, 국내외의 대학들이 함께 연구하고 싶은 대학원, 산업체와 연구기관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원이야말로 대학원의 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대학원들이 학생과 국내외 타 대학원, 산업체와 연구기관들로부터 충분히 피드백을 받으며 연구와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생 중 상당수는 졸업 후 교수 혹은 훌륭한 연구자로서의 취업을 희망한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문·사회계열의 교수진 중 대략 80%가 외국대학 출신이고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60%가 외국대학 출신이다. 이것은 최소한 교수가 되고자 꿈꾸는 특히,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국내 대학원은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들에게 ‘교수로서의 직업 경로’로써는 바람직한 장소가 아닌 것이다. 향후에는 우리 대학원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고려하며 대학원 발전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대학원의 전담 행정조직 및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다음은 우리나라 대학원의 조직과 거버넌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기관) 차원의 행정조직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대학이 일반대학원을 설치하고 있고 소속으로 교학 팀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학사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학과 내 조직의 경우 절반 이상(51.1%)이 ‘없다’라고 응답함으로써 대학원 차원의 학사관리가 학과 차원으로 분권화되기보다는 대학(기관) 차원으로 집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중심대학과 사립-연구중심대학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응답이 나왔다. 국립대학의 경우

60.9%가 '없다'라고 응답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 학사행정이 학부교육 단계에 치중되어 있고, 여전히 대학원 학과만의 특별한 조직에 대한 관심과 행정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 대학원 소속의 전임교수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는 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본질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89.8%)의 학과에서 대학원 전임 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원 통제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국립대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웬만한 연구중심대학에서조차 대학원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 층이 얇아서 석사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박사과정에서 다시 배우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수한 석사 졸업생을 국내에 붙잡아 두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박사과정 입학자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상당수 명문대 대학원의 당면 과제는 학부의 우수인재를 대학원으로 유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얇은 교수 층의 문제는 대학원 교육여건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³⁾

셋째, 대학원 전공 신설, 정원 조정, 예산편성 등의 이슈에서 교수들이 체감하는 자율성이 대단히 낮다. 이는 대학원 전공 신설 및 정원 조정이 대학(기관) 차원에서 자원의 집중과 분산과 같은 전략적 선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만한 이슈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기관) 차원에서조차 여러 법적, 제도적 규제(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등으로 그러한 선택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대학원 자율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개선

1) 교육과정의 질 제고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과정은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미국처럼 교육과정이 엄격한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교수들이 교육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유럽처럼 연구실 중심의 혹은 연구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교과목의 개설에 대해 특히 박사과정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석사과정에서 들은 과목이 많아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법론과 관련한 교과목 개설에서는 특히, 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연구중심 대학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대개 교수들은 연구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3) 2013.8.30. 실시된 인문·사회분야 심층면담에서 나온 국립연구중심대학 S교수의 발언요지임.

방법과 노하우를 배울 것을 기대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제대로 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원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대개는 전공과 관련한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 초청 강연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제는 대학원생들에게 융복합의 경험을 많이 제공하거나 진로 개발과 연관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연구 실적 위주의 분위기에서 그러한 탐색은 순전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고 대학원 학생들은 학부 학생에 비해 오히려 자신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직업의 특성과 자신의 성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원 학생의 진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체 취업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대학원생들이 국제적 환경에서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해외 학회 참여와 교환 학생 교류 뿐 아니라 외국 대학원과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세계에 나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다행히 외국인 교수 및 학생이 많아지면서 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류의 내용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에 산업체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수요와 대학의 교육과정 사이에는 다소 격차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수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적 차원에서 그러한 협력 활동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원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특정 기업이나 산업 부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교수와 특정 산업체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학과 산업체 기관 사이의 협력 방안을 다양한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대학원생들은 교수가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 신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당수의 대학원에서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해 대단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론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업 준비의 충실성이나 논문 지도의 질 등에 관한 학생들의 평가에서 오히려 연구중심대학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에서 연구와 교육은 결코 제로섬의 게임일 수 없다. 대학원의 연구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교육과정이 연구의 성과를 가져오는 포지티브 썸(positive sum)이 되어야 한다.

2) 연구 수행을 위한 안정적 지원 및 교육과 연구의 연계

우선 상당수의 대학원생들이 정부를 포함한 연구과제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은 연구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비를 통한 인건비 해결이 절실하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수가 연구비를 수주한다는 것은 즉, 대학원생도 함께 그 자체로 연구 수행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대학원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비 교수로서의 일상과 같은 삶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교수가 수주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본래의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은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이 미국식 대량생산 위주의 교육과정을 형식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학생간 실험, 공동연구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연구과제의 수행은 유럽대학의 도제식 관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대학원생들에게는 대단히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즉, 학생들은 수업준비와 연구과제 수행을 병행하면서 이론과 실재를 병행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만 역설적으로 이 때문에 이론 공부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가정과 달리 학생들이 연구과제 참여로 인해 수업 준비에 큰 어려움은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대학원생들이 연구과제 수행과 학습시간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학문 분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우려할 상황이 한편에선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및 연구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한 장학제도의 확충은 여전히 중요하다.

시설·장비 및 공간 등 교육여건의 부족함은 학생들의 만족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하고는 7점 만점에 4점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학비 지원에 관한 조사항목에서 사립-연구중심대학 학생들의 학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립대학, 그중에서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학의 재정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중심대학 및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학비가 면제되거나 등록금 수준 자체가 낮은 대학인데 비하여 사립-연구중심대학은 여전히 등록금 수준이 높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위치하여 생활비 수준 역시 높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반상진·신현석·이석열·이은구·김겸훈·민병제(2004).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체제적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2(2), 255~277.
- 서정현·신현석·반상진·이석열·조경덕(2006).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체제 개편 및 제도개선 시행방안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6-지정-02. 교육인적자원부.*
- 신정철(2012). '교육'과 '연구'의 관점에서 본 대학원 교육의 문제. *지식의 지평 2012년 12호.*
- 신현석(201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7(1), 156-192.
- 엄미정·박기범·김형주·이운지·박동오(2012).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2-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임한조·이석한·이홍남·이병찬·안영식(2012). 국내 대학원의 연구역량 제고 및 세계 수준의 국내박사 양성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2011-016-정책연구. 한국연구재단.*
- 임희진, 김소현, 박혜연, 김경호 (2016).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3), 379-408.
- 전종희(2013). 공과대학 대학원에서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양상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27(1), 1-34.
- 최중길 외(2012). WCU-BK21 후속사업 세부 계획 수립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허준행·한경희·이창하·장덕호·박기범(2012). 연구와 교육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책연구-2012-021. 한국연구재단.*
- Baird, L. L. (1990). The melancholy of anatomy: The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graduate and professional school students. In J. C. Smart(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Vol. 6, pp. 361-392). New York: Agathon.
- Berelson, B. (1960). *Graduat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McGraw-Hill.
- Brink, W. J. (1999). Selecti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0, 517-523.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39).
- Clark, B. R. (1997). The modern integration of research activities with teaching and learning.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8(3), 241-255.
- Ramsden, P. & Moses, I. (1992). Associations Between Research and Teaching in Australia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23, 273-295.
- Turner, J. L., Miller, M., & Mitchell-Kernan, C. (2002). Disciplinary cultures and graduate education. *Emergences: Journal for the Study of Media & Composite Cultures*, 12(1), 47-70.

토론 1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토론

이석열(남서울대학교)

I. 도입

우리나라 대학원은 양적 팽창에 비해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고, 대학원 유형별로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면서도 고등교육의 수준과 경쟁력에 대한 기대는 학부에서 대학원 교육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점에서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학문적 수월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학회가 학술대회 주제를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으로 삼은 것을 바람직해 보인다.

발표를 맡아주신 이정미 교수의 원고는 지난 2013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원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제도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질 관리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연구되었던 내용을 정리·보완해서 발표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발표자는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운영실태 및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대학원 운영 실태를 투입-과정-산출의 시스템적 접근모형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대학원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대학원의 발전방안도 대학원 질적 수준 강화, 대학원의 전담조직 및 거버넌스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대학원 교육 및 연구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이라는 발표자의 의견에는 동의하면서 토론자의 소견을 밝히며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II. 발표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발표자의 일반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우선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원생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졸업한 대학과 동일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약 61%로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과거보다는 낮아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앞으로 대학 간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부와 동일한 대학원 또는 석사과정의 대학원과 동일한 박사과정의 대학원 진학하는 비율이 더 낮아지고, 타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대학원의 풍토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결과를 보면 대학원 전공에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대학 내에서만 노력하고 있는데 시선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원 전공과 학부 전공의 일치율이 약 77%로 나타났는데, 향후 융복합 전공과 미래 사회의 적합성을 고려한다면 비율을 더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교원 임용에서 전공적부심에서 학부와 석사까지 동일 전공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도 수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둘째, 일반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여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발표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80%이상이 학업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학생들의 학비마련을 보면 장학금의 비율은 약 25%로 나타났고, 그 외는 연구과제 참여 인건비나 학자금 대출이 약 38%이며, 가족들의 부담도 17.1%에 이르고 있다.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지원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문후속세대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발표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원생 진로개발 및 지도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약 38%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소위 강사법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점점 학문후속세대들이 대학 강단에 설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물론 학문후속세대가 모두 교수요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염두해 두지 않고 일반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점에서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진로개발이 대학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전공과 무관하게 교수요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Ⅲ. 대학원의 도전과 혁신 차원에서 대학원 교육에 대한 논의

향후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포함한 대학원의 도전과 혁신차원에서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첫째, 대학원 교육의 확대와 보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원 규모는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되어 2017년 기준으로 대학부설 대학원 수는 1,153개이며, 대학원대학은 46개교에 달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대학원 졸업자, 즉 학위 취득자 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석사학위

취득자 중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32,846명(39.4%)이고, 전문·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50,673명(60.6%)이며,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3,228명으로 전체 박사학위 취득자의 93.1%를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현재 대학원 교육은 약 5년 전부터는 확대의 정체기에 들어서고 있고, 보편화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표 1>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

(단위: 개교)

구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기타
			대학원 대학	대학부설 대학원		
2017	430	189	46	1,153	138	45
2016	430	189	46	1,149	138	45
2015	431	189	47	1,150	138	45
2014	431	189	44	1,165	139	47
2013	431	188	43	1,157	140	48
2012	430	189	43	1,134	142	44
2011	432	183	41	1,126	147	42
2010	411	179	40	1,098	145	26
2000	372	161	17	812	158	6
1990	265	107	-	298	117	24
1980	237	85	-	121	128	13
1970	168	71	-	-	65	16

주 1)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2) 폐교 및 분교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

3) 기타에는 교육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됨.

4) 대학부설대학원은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 교육부(2018.8). 2018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표 2> 대학원 학위취득자 수

(단위: 명)

구분	대학원(전체)			일반대학원			전문/특수대학원		
	계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계	석사	박사
2017	97,835	83,519	14,316	46,074	32,846	13,228	51,761	50,673	1,088
2016	95,342	81,460	13,882	44,749	31,947	12,802	50,593	49,513	1,080
2015	94,741	81,664	13,077	43,952	31,953	11,999	50,789	49,711	1,078
2014	95,736	82,805	12,931	44,652	32,611	12,041	51,084	50,194	890
2013	95,563	82,938	12,625	44,235	32,499	11,736	51,328	50,439	889
2012	95,008	82,765	12,243	44,489	33,036	11,453	50,519	49,729	790
2011	91,048	79,403	11,645	42,715	31,725	10,990	48,333	47,678	655
2010	87,870	77,328	10,542	39,397	29,514	9,883	48,473	47,814	659
2000	53,379	47,226	6,153	31,559	25,407	6,152	21,820	21,819	1

주 1) 대학원에는 대학부설 대학원의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이 포함됨.

2) 대학원 학위취득자는 2013년 8월, 2014년 2월 학위취득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 교육부(2018.8). 201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위 표에서처럼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확대에 대해서 시각이 나누어지고 있다. 대학원의 현황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대학원 교육기관이나 대학원생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발전, 특히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석·박사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원의 석·박사 인력이 너무 많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토론자는 현재 '석·박사 인력의 과다배출'이라는 입장보다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포함한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원 교육의 질을 개선하면서 현재의 현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대학원의 질적 수준 강화차원에서 대학원 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발표자께서는 대학원의 질적 수준 강화 차원에서 인적 자원의 우수성, 행정적 인프라 구축, 대학원 교육 시스템, 대학원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대학 내부적으로 볼 때,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학원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이 있어 왔다. 지난 2013년 교육부에서도 「고등교육종합발전 방안」과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학원 평가체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이석열 외, 2015)와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진단 시스템 시범운영」(신현석 외, 2016)이 이루어졌으나 대학원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 정부에서는 대학원 평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없는 듯 하다. 현재 대학원과 관련된 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재정지원사업(BK21플러스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실태 분석이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던 대학원 평가는 지난 2001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된 2주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였다. 이 당시 대학종합평가에서 사용된 대학원 평가의 준거는 교육과정(20점), 수업 및 논문지도(36점), 교수(22점), 시설·설비(12점), 그리고 재정·경영(10점)의 5대 영역으로 구분해 총점 100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기능에 많은 초점을 두었다.

현재 대학 규모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대학원교육의 질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박사과정은 타 학위과정 대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총 2,189개의 대학(일반 4년제 기준) 중 12.3%인 270개 대학만이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NCES, '08~'09 통계자료).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 평가에 대해서 시각이 나누어지고 있다.** 대학이나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원에 대한 질적 관리는 필요하지만 대학원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과 더불어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반면에 대학원의 질 제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대학원이 학사운영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 토론자는 대학원의 경우, 평가인증체제에 의해 기관인증이나 프로그램 인증 제도의 정착을 통해 대학원 교육을 위한 최소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원 평가체제를 수립해서 별도로 대학원을 평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과거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서처럼 3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부터 해당 대학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 평가까지 함으로써 대학원의 질 제고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보면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질 관리가 정부 통제가 아닌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셋째,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의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과 대학원의 교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행정 분리·독립의 한계는 있지만 발표자께서 언급한 대학원의 전담 행정조직 및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발표자께서 언급한 교육과정의 질 제고, 연구수행을 위한 안정적 지원, 교육과 연구의 연계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대학원에 대한 기초 자료 축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대학정보공시의 대상 학교 유형은 대학, 전문대, 대학원대학, 그리고 대학원이다. 이 중 대학원을 제외한 3개 유형은 독자적인 기관으로 간주하여 정보공시항목의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만, 대학원의 경우 대학과 통합 운영되는 기관으로 63개 정보공시 항목 중에서 대학원이 독자적으로

작성 가능한 정보공시항목은 15개 항목으로 한정되고 있으며 정량항목은 13개이다. 이들 13개 항목은 학생 관련 항목, 교육과정 운영 관련 항목, 등록금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임교원 관련 항목, 연구 관련 항목, 시설·설비 관련 항목은 대학의 자료와 연계하여 대학 전체 또는 계열 차원에서 분석만이 가능하다. 현재 대학원 정보공시만으로는 대학원에 대한 자료 축적에 한계가 있고, 대학원 교육의 과정은 블랙박스로 아직도 대학원에 대한 자료는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지 않다. 발표자가 수행했던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실태 파악과 같은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대학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V. 마치면서

우리나라 대학원은 사실상 각 대학원의 노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다. 대학원마다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기 보다는 각기 다른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대학원과 관련한 연구(이석열 외, 2014; 신현석 외, 2015)에서 보면 연구중심대학의 경우는 타 대학원에 비해서 외부 연구 수혜 실적이 많고, 교외연구비도 많이 지원 받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지원비나 연구 지원이 미비하고 행정 및 지원 활동이 단과대학이나 학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대학원의 고유의 가치체계나 특성화 전략 또는 교육 목표 등이 분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동안 고등교육 체제의 개선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등교육이 양적으로는 급성장 하였으나 아직까지 세계적 수준과는 큰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발판으로 우리나라 일반대학원이 학문의 기초 이론을 탐구하고 고도의 학술 연구를 하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목적지향성을 실현하여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문후속세대들의 성장과 행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토론 2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

백정하(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 도래와 국제화 등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확산, 강화되면서 정부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과 논의는 대학(학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경향이 있다. 국내 고등교육은 엘리트단계를 벗어나 보편화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며,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속에서 대학경쟁력을 제고해야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환경변화 속에서 경쟁력 제고 및 기능과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원의 문제에 대해 학회에서 집중 논의하며, 발전방향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대학원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들은 대학원 제도의 전반적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둔 측면이 있다. 오늘 발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원 현실의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 생각한다. 학문후속세대 양성 교육의 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발표내용에 대해 토론자로서 몇 가지 생각을 첨언하면서 국내 대학원의 발전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발표내용에 대한 몇 가지 생각

1)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와 대학원 현황에 대한 제시 필요

발표자는 국내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관련해 대학원 현황에 대해 많은 것을 독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술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대학원 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듯하다. 본 발표내용이 과거 연구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 보고서에서는 많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고서를 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국내 대학원의 일반적인 현황, 학문후속세대 육성과 관련한 일반대학원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서 대학원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일반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실태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2) 분석 단위의 선정에 대한 설명 필요

연구방법에서 조사배경과 관련해 여러 변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발표내용은 학위과정과 대학원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래 연구보고서에서는 모든 변인들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보고서와 달리 모든 변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중요한 두 개 변인만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 여러 변인 중에서 두 개의 변인을 선정해 분석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변인 선정의 이유에 대한 기술을 통해 두 변인이 가지는 의미와 분석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들 변인간에 개별적인 분석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변인들간의 관계속에서 분석을 시도하여 차이를 도출해볼 수도 있을듯하다.

3) 너무 많은 내용의 분석

발표자는 많은 설문조사 항목들을 대상으로 배경변인간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 일반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실태와 문제점을 알려주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발표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너무 많은 항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해 제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항목별로 단순하게 나열적으로 분석결과가 기술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여러 배경변인들 중에서 두 개 변인을 선정하였듯이 몇 가지 항

목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원교육,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이 집중되고, 이해도도 높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4) 설문지의 응답자간 비교분석과 척도에 대한 기술

발표자는 대학원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학위과정과 대학원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문항들은 동일한 내용을 대학원생과 교수에게 동시에 질문할 수도 있고, 응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반응 결과 및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응답자간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리커트척도를 이용한 설문지의 경우에 몇점 척도를 이용하였는지 기술되지 않고, 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 7점 척도라는 것을 유일하게 기술하고 있다. 내용상 기본적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고, 만족도의 경우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연구방법에 대한 기술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해주었다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대학교 및 대학원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발전방향 제시

일반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실태에 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자의 지적은 일반대학원의 발전방향과 정책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일반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되는 측면도 있어서, 대학교 및 대학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발표 내용이 학위과정 및 대학원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듯이, 발전방향도 학위과정과 대학원 유형을 고려해 제시되었다면 대학원별로 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는데, 모든 설문항목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6) 정부와 대학의 역할 제시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대학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 대학원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개별대학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대학원의 발전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할 사항과 대학원차원에서 수행할 내용이 구분되어 제시되었다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더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

□ 나가면서

일반대학원은 기본적으로 학문후속세대 육성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문발전에 기여해 왔다. 학문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대학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오늘의 논의가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대학원 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속에서 대학원의 경쟁력 제고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기획주제 2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발표: 박세훈(전북대)

토론: 유현숙(고려대)

김갑성(한국교원대)

기획주제 2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박세훈(전북대 교수)

I. 서론

우리나라 대학원은 1953년 대학원 규정이 제정되고 1959년 최초로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된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 대학원의 역사는 일반대학원이 아닌 특수대학원부터 시작된 것이다. 1965년 37개 대학원에 학생 수 3,482명이었던 규모가 1980년에는 121개 대학원에 33,939명, 2000년에는 829개 대학원에 229,437명, 2010년에는 1,138개 대학원에 316,633명, 2017년에는 1,199개 대학원에 326,315명의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다. 1980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대학원 수와 학생 수의 측면에서 약 10배 가까운 비약적 성장을 이룬 셈이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과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고학력 시대로 진입하고 직장인과 성인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특수대학원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대학에 5~10개 정도의 특수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특수대학원은 대학원 교육의 보편화에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되나, 유형별 특색화가 부족하다. 특히 특수대학원은 직장인의 계속교육보다는 학위 취득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학의 주요 수입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송창용 외, 2013).

대학원 신설이 비교적 용이하고, 논문 없이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무논문학위제가 확산되면서 학위남발과 부실운영 등 대학원 운영의 문제가 주로 특수대학원에서 비롯됨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교육의 질적인 수준도 일반대학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서정현 외, 2005). 학업보다는 학벌세탁이나 인맥 쌓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중앙일보, 2014.3.20.일자).

입학정원 비중으로 보면 특수대학원은 전체 대학원 정원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원이 석·박사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석사과정 학생의 절반이 특수대학원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특수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이 전체 19.5%에 해당하고,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는 24.7%인 점을 고려하면(송창용 외 2013), 특수대학원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특수대학원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특수대학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현실과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수대학원 전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지만, 특수대학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대학원과 교육행정 전공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특수대학원의 현황

1. 특수대학원의 특징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대학에 둘 수 있고,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설치된 대학원이다.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교육목적은 다르지만 교육내용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이론과 실무 위주로 편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송창용 외, 2013).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주로 주간에 수업을 하지만, 특수대학원은 직장인과 성인들에 대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이기 때문에 야간제나 계절제로 운영된다.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 산업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설치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2항).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일반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연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 원칙이지만,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도 있는 반면,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29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2조).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야간제 2년 6개월, 계절제 3년제로 운영하며, 석사과정만을 두고 비교하면 수학년한이 제일 길다고 볼 수 있다(송창용 외, 2013).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학위논문을 작성해야 하며, 특수대학원은 학칙에 따라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추가적인 학점이수와 현장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송창용 외 201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 제3항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사회적 인력수요, 인력수급정책, 법적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학원별 학과(전공)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학과(전공)에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전체 개설 학점 수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의 강의비율 60% 이상, 교원의 연구 실적이 충족되어야 하고 교원은 학부와 연계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전문대학원 신설기준을 충족해야하고 박사과정은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교원의 연구 실적이 필요하다. 특수대학원의 석사과정은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하면 설립할 수 있고 교원은 학부와 연계가 가능하다. 이처럼 특수대학원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 느슨한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 특수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대학원 유형별로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대학원 유형 및 특징

구분	근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목적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학문의 기초 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 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교육 내용		학술이론 및 연구방법론	실천적 이론 및 실무	실천적 이론 및 실무
수업 형태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주간	주간	야간·계절제
설치 가능한 기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2항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은 두 대학원 중 1개만 설치 가능	
학위 과정	시행령 제22조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원칙),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학칙)	석사과정

구분	근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수업 연한	고등교육법 제31조	석·박사: 2년 이상 석·박사 통합: 4년 이상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야간제: 2년 6개월 계절제: 3년제
학위 논문 작성	시행령 제44조	학위논문 작성 원칙	학위논문 작성	학위논문 작성, 논문대체시험·학점이수 등으로 가능
학위 수여	시행령 제46조	학술학위	전문학위(원칙), 학칙에 따라 학술학위 가능	전문학위
설립 요건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의2	·석사과정: 학과(전공)에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박사과정: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의 강의비율 60% 이상, 교원의 연구 실적 충족	·석사과정: 전문대학원 신설기준 확보 ·박사과정: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교원의 연구 실적 충족	·석사과정: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배출 인력	.	연구 및 교수 인력의 양성	전문직 인력의 양성	직업인의 계속교육

출처: 고등교육법,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송창용 외(2013), 정지선 외(2009)

2. 대학원 운영현황

가. 설립별 대학원 수 변화 추이

대학원은 1953년 문교부 훈령 제8호 '대학원규정'에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정심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학원 발전과정을 보면, 1953년 대학원 규정 제정으로 1959년 서울대의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 1963년 서울대의 교육대학원이 설치된 이후, 1965년에는 37개 대학원에 학생 수 3,482명으로 시작하여 석사과정 중심으로 인문, 사회, 자연계의 기초 학문 분야가 주로 개설되었다(이석열 외, 2015). 1980년까지는 대학원 교육체제를 갖추

는 발전 초기 단계였고, 1990년대 이후 고급인력의 사회적 수요 증대와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응용학문(경영, 법학, 공학, 교육 등)이 발달하면서 특수대학원이 급격히 팽창하였다(이석열 외, 2015). 특히 1980년에 121개였던 전체 대학원 수는 2017년에 1,199개로 약 10배 증가했고 국·공립대학원은 1980년 32개에서 2017년 241개로 약 7.5배, 사립대학원은 89개에서 958개로 약 10.7배 증가했다. 대학(학부)의 규모는 1980년에 비해 2017년에 불과 1.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대학원의 성장세가 대학(학부)보다 더 뚜렷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원대학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학부)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만 두고 있는 대학교이며 2017년 46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80년 이후 설립별 대학원 수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1980년 이후 설립별 대학원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소계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소계	대학부설 대학원	대학원 대학
1980	121	121	-	32	32	-	89	89	-
1990	298	298	-	64	64	-	234	234	-
2000	829	812	17	150	150	-	679	662	17
2010	1,138	1,098	40	216	215	1	922	883	39
2017	1,199	1,153	46	241	239	2	958	914	4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주: 대학원대학은 1998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함.

나. 유형별 대학원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는 유형별로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학원이 팽창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대학원 유형별 대학원 및 학생 수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대학원은 1980년 58개에서 2017년 186개로 약 3.2배 증가하였고, 학

1) 학생 수는 재학생 수와 휴학생 수를 포함한 재적학생 수이다.

생은 21,551명에서 152,326명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원²⁾은 2000년 54개, 5,809명에서 2017년 199개, 44,235명으로 대학원 수는 약 3.6배, 학생 수는 약 7.6배 증가하였다. 특수대학원은 1980년 63개, 12,388명에서 2017년 814개, 129,754명으로 대학원 수는 약 12.9배, 학생 수는 약 10.4배 급격히 증가하였다. 대학원 수나 학생 수의 변화에 있어서 특수대학원의 변화가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 두드러졌다. 특수대학원의 경우, 학생 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대학원 수 대비 일반대학원은 15.4%, 전문대학원은 16.6%, 특수대학원은 68.0%이고, 전체 학생 수를 중심으로 보면, 일반대학원생이 46.6%, 전문대학원생이 13.6%, 특수대학원생이 39.8%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석·박사과정을 포함하고 특수대학원은 석사과정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특수대학원이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유형별 대학원 및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1980년 이후 유형별 대학원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개/명)

구분	전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 수	학생 수	대학원 수	학생 수	대학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1980	121	33,939	58	21,551	-	-	63	12,388
1990	298	86,911	97	51,054	-	-	201	35,857
1995	421	112,728	106	65,756	-	-	315	46,972
2000	829	229,437	129	111,542	54	5,809	646	112,086
2005	1,051	282,225	145	120,601	130	15,828	776	145,796
2006	1,051	290,029	149	123,835	138	18,439	767	147,755
2007	1,042	296,576	154	126,584	148	22,717	740	147,275
2008	1,055	301,412	158	129,669	150	25,767	747	145,976
2009	1,115	306,471	163	132,017	193	30,166	759	144,288
2010	1,138	316,633	167	137,532	199	34,361	772	144,740
2011	1,167	329,933	178	147,038	206	38,905	783	143,990
2012	1,177	329,544	182	147,577	210	40,739	785	141,228
2013	1,200	329,822	184	149,239	214	44,548	802	136,035
2014	1,209	330,872	182	151,982	215	45,502	812	133,388
2015	1,197	333,478	183	154,817	201	45,729	813	132,932
2016	1,195	332,768	184	154,882	206	46,033	805	131,853
2017	1,199	326,315	186	152,326	199	44,235	814	129,75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 전문대학원은 1998년부터 시작했다.

3. 특수대학원 현황

가. 설립별 특수대학원 현황

특수대학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분리해서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설립별 특수대학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총 776개의 특수대학원이 국립 121개, 공립 9개, 사립 646개가 각각 설치·운영되었다. 국립은 2005년부터 소폭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3년부터 140개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공립은 2005년 9개에서 2017년 5개로 4개 감소하였고, 사립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7년에는 670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2017년 전체 특수대학원 수 대비 국·공립 비중은 17.7%, 사립은 82.3%로 사립대학 비중이 국·공립대학보다 훨씬 큰 편이다. 2005년 이후 설립별 특수대학원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2005년 이후 설립별 특수대학원 변화 추이

(단위: 개)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2005	776	121	9	646
2006	764	120	9	635
2007	740	117	9	614
2008	747	116	9	622
2009	759	118	9	632
2010	772	124	9	639
2011	783	128	9	646
2012	785	132	9	644
2013	802	139	5	658
2014	812	140	5	667
2015	813	141	5	667
2016	805	141	5	659
2017	814	139	5	67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나.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입학자, 충원률, 졸업자, 수료자 현황

2005년부터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입학자, 충원률, 졸업자, 수료자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대학원 입학정원은 2009년 대비 2010년에 343명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2005년 58,289명에서 2017년 50,867명으로 약 13% 감소하였다. 입학자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면서 2005년 51,117명에서 2017년 45,070명으로 약 12% 감소하였다.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인 충원률은 2005년 87.7%에서 2010년 94.2%로 6.5% 증가하다가 다시 소폭 감소하면서 2017년에는 88.6%가 되었다. 특수대학원의 입학자와 충원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대학원 입학자원이 줄고 있음을 의미하며, 대학원 간 신입생 유치에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만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자 수는 석사학위 취득자 수와 동일하다. 졸업자 역시 충원률과 유사하게 2005년 37,445명에서 2008년 40,844명으로 3,399명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서 2017년에는 38,250명이 되었다. 입학자 수에서 졸업자 수를 제외하여 단순 비교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수도 상당 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수료자를 졸업시키기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2017년 기준으로 약 15% 정도의 특수대학원생이 제때에 졸업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5년 이후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입학자, 충원률, 졸업자, 수료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II-5>와 같다.

<표 II-5> 2005년 이후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입학자, 충원률, 졸업자, 수료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입학정원	입학자	충원율	졸업자	수료자
2005	58,289	51,117	87.70%	37,445	13,672
2006	56,905	51,180	89.94%	39,970	11,210
2007	55,091	50,003	90.76%	39,593	10,410
2008	54,437	49,571	91.06%	40,844	8,727
2009	54,383	49,623	91.25%	40,782	8,841
2010	54,726	51,564	94.22%	40,587	10,977
2011	54,623	49,873	91.30%	40,281	9,592
2012	52,372	47,403	90.51%	39,698	7,705
2013	51,238	46,570	90.89%	39,215	7,355
2014	51,175	46,186	90.25%	38,341	7,845
2015	51,159	47,061	91.99%	37,760	9,301
2016	51,142	45,683	89.33%	37,252	8,431
2017	50,867	45,070	88.60%	38,250	6,82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다. 특수대학원 계열별 학과 및 학생 수 현황

특수대학원 계열별 학과 및 학생 수 현황을 최근 3개년(2010년, 2015년, 2017년)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수대학원의 전체 학과 수는 2010년 4,741개에서 2017년 4,495개로 246개 줄었으며, 전체 학생 수도 2010년 144,740명에서 2017년 129,754명으로 14,986명이 감소하였다. 2010년 대비 2017년 학과 수는 교육계열 350개, 공학계열 102개, 예체능계열 32개, 자연계열 14개 감소하였고, 반면에 사회계열 116개, 인문계열 94개, 의약계열 42개가 증가하였다. 학생 수는 교육계열 13,770명, 사회계열 3,257명 공학계열 2,162명, 예체능계열 728명 감소하였고 인문계열 3,547명, 의약계열 1,642명, 자연계열 12명 증가하였다.

2017년 특수대학원 전체 계열별 학생비율 순위는 교육계열 31.0%, 사회계열 30.4%, 인문계열 16.6%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열은 경영대학원이나 행정대학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과 수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계열 학과 수나 학생 수가 특수대학원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계열 학생비율은 2010년보다 2017년에 6.3% 감소하여 다른 계열보다 제일 큰 감소율을 보였지만, 2010년 37.3%, 2015년 31.9%, 2017년 31.0%로 여전히 다른 계열에 비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개년 특수대학원 계열별 학과 및 학생 수 현황은 다음 <표 II-6>과 같다.

<표 II-6> 최근 3개년 특수대학원 계열별 학과 및 학생 수 현황

(단위: 개/명/%)

구분	2010			2015			2017		
	학과 수	학생 수	학생비율	학과 수	학생 수	학생비율	학과 수	학생 수	학생비율
인문계열	300	17,877	12.4%	378	21,252	16.0%	394	21,424	16.6%
사회계열	1,196	42,995	29.7%	1,295	40,656	30.6%	1,312	39,468	30.4%
교육계열	1,715	54,024	37.3%	1,416	42,401	31.9%	1,365	40,254	31.0%
공학계열	712	11,435	7.9%	623	9,416	7.1%	610	9,273	7.1%
자연계열	202	2,845	2.0%	202	3,027	2.3%	188	2,857	2.2%
의약계열	208	6,279	4.3%	240	7,487	5.6%	250	7,921	6.1%
예체능계열	408	9,285	6.4%	407	8,693	6.5%	376	8,557	6.6%
합계	4,741	144,740	100%	4,561	132,932	100%	4,495	129,754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라. 특수대학원 지역별 현황

2017년 특수대학원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대학원 258개, 학과 1,232개, 입학정원 19,930명, 학생 수 53,825명, 학생비율 41.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은 특수대학원 수 127개, 학과 464개, 입학정원 7,031명, 학생 수 17,005명, 학생비율 13.1%이다. 학생 비율만 따져보면, 서울, 경기도 다음에 부산, 충남, 대구, 충북, 대전, 경북, 광주, 경남, 전북, 강원, 인천, 제주, 전남, 울산, 세종 순이다. 이는 특수대학원 학생 수가 지역의 인구수와 비례하지 않아 지역에 따라서는 대학원생 모집 경쟁이 치열함을 시사하고 있다. 2017년 지역별 특수대학원의 현황은 다음 <표 II-7>과 같다

<표 II-7> 2017년 특수대학원 지역별 현황

(단위: 개/명/%)

지역	특수대학원 수	학과 수	입학정원	학생 수	학생비율
서울	258	1,232	19,930	53,825	41.5%
부산	56	394	3,198	8,350	6.4%
대구	27	218	2,103	5,757	4.4%
인천	12	65	944	2,045	1.6%
광주	29	204	1,914	4,603	3.5%
대전	43	190	2,159	5,264	4.1%
울산	6	31	446	988	0.8%
세종	5	25	177	401	0.3%
경기	127	464	7,031	17,005	13.1%
강원	32	267	1,672	3,188	2.5%
충북	29	214	1,931	5,318	4.1%
충남	38	326	2,381	6,991	5.4%
전북	39	249	1,913	3,983	3.1%
전남	16	113	691	1,369	1.1%
경북	55	206	1,950	5,060	3.9%
경남	33	201	1,988	4,146	3.2%
제주	9	96	439	1,461	1.1%
합계	814	4,495	50,867	129,754	10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마. 특수대학원 종류 현황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대학원 명칭에 따라 분류한 특수대학원 종류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대학원 수는 2005년 776개에서 2017년 814개로 4.7%로 소폭 증가했지만, 특수대학원 종류는 2005년 258개에서 2017년 342개로 25% 대폭 증가하였다. 특수대학원 종류의 급격한 증가는 노동시장과 산업의 다변화에 따라 직업인 또는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 및 재교육의 수요 증족과 각 대학들이 대학 고유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강조하기 위해 특수대학원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은 큰 변화가 없는데 대학원 이름만 바꾼 경우도 있다. 명칭에 따른 특수대학원 종류 현황은 다음 <표 II-8>과 같다.

<표 II-8> 명칭에 따른 특수대학원 종류 현황

(단위: 개)

구분	2005	2010	2015	2017
특수대학원 수	776	772	813	814
특수대학원 종류	258	270	332	34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05년과 2017년 특수대학원 명칭에 따른 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교육대학원 131개, 경영대학원 49개, 산업대학원 43개, 행정대학원 35개, 사회복지대학원 32개 등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2017년에는 교육대학원 122개, 경영대학원 47개, 사회복지대학원 35개, 신학대학원 31개, 산업대학원 3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하여 2017년 순위를 보면, 교육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은 1위와 2위를 유지했지만, 2005년 3위 산업대학원과 4위 행정대학원은 2017년에는 산업대학원은 5위, 행정대학원은 6위로 하락했다. 2005년에 정보통신대학원은 8위, 디자인대학원은 10위로 상위 10위 안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렸으며, 2017년에 상담대학원과 공학대학원이 각각 8위, 10위로 새롭게 10위권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는 학교의 실정과 산업 수요에 맞게 특수대학원의 신설 및 통합이나 분리를 위해 특수대학원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대학원 명칭에 따른 분류 현황은 다음 <표 II-9>와 같다.

<표 II-9> 특수대학원 명칭에 따른 분류 현황

(단위: 개)

순위	구분	2005		2017	
		특수대학원 명칭	특수대학원 수	특수대학원 명칭	특수대학원 수
1		교육대학원	131	교육대학원	122
2		경영대학원	49	경영대학원	47
3		산업대학원	43	사회복지대학원	35
4		행정대학원	35	신학대학원	31
5		사회복지대학원	32	산업대학원	25
6		신학대학원	26	행정대학원	22
7		경영행정대학원	18	보건대학원	19
8		정보통신대학원	15	상담대학원	10
9		보건대학원	14	경영행정대학원	8
10		디자인대학원	13	공학대학원	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4.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현황

가. 대학 유형별 교육대학원 현황

2017년 대학 유형별 교육대학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립 목적은 교육이론을 교육현장에 연계하고 현직교원 재교육과 해당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함이다. 2017년 대학 유형별 교육대학원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대학 108개(93.1%), 교육대학 8개(6.9%)가 설치되어 있고 산업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전체대학 199개 중 교육대학원은 116개로 약 61%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국립 32개(27.6%), 공립 1개(0.8%), 사립 83개(71.6%)로 사립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7년 대학 유형별 교육대학원 설치 현황은 다음 <표 II-10>과 같다.

<표 II-10> 2017년 대학 유형별 교육대학원 설치 현황

(단위: 개/명/%)

대학유형	설립유형	전체대학 수(%)	교육대학원 설치 학교 수(%)	학과 수(%)	입학정원(%)
일반대학	국립	29(14.6)	24(20.7)	479(34.2)	4,798(30.7)
	공립	1(0.5)	1(0.8)	5(0.3)	54(0.3)
	사립	159(79.9)	83(71.6)	728(52.1)	8,559(54.8)
	소계	189(95.0)	108(93.1)	1,212(86.6)	13,411(85.8)
교육대학	국립	10(5.0)	8(6.9)	185(13.4)	2,215(14.2)
합계		199(100)	116(100)	1,397(100)	15,626(100)

※출처: 교육부 교원양성기관현황(2017)

※주: 대학유형 중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은 제외함.

나.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 현황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특수대학원 수 대비 교육대학원 수와 비율은 2005년 131개, 16.9%에서 2017년 122개, 15.0%로 각각 9개, 1.9% 감소하였다. 전체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대비 교육대학원 입학정원과 비율은 2005년 20,358명, 34.9%에서 2017년 15,147명, 29.8%로 각각 5,211명, 5.1% 감소하였다. 전체 특수대학원 학생 수 대비 교육대학원 학생 수와 비율은 2005년 57,684명, 39.6%에서 2017년 40,511명, 31.2%로 각각 17,173명, 8.4% 감소하였다. 전체 특수대학원 대비 교육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과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전체 특수대학원 수 대비 교육대학원 비율은 15%이지만, 입학정원 비율 29.8%, 학생비율 31.2%로 특수대학원 중에서 교육대학원의 위상은 높은 편이다.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 현황은 다음 <표 II-11>과 같다.

<표 II-11>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전체 특수대학교 수	776	740	759	783	802	813	814
교육대학원 수	131	130	130	132	124	120	122
비율	16.9%	17.6%	17.1%	16.9%	15.5%	14.8%	15.0%
전체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58,289	55,091	54,383	54,623	51,238	51,159	50,867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교육대학원 입학정원	20,358	20,078	20,077	19,736	16,021	15,615	15,147
비율	34.9%	36.4%	36.9%	36.1%	31.3%	30.5%	29.8%
전체 특수대학원 학생 수	145,796	147,275	144,288	143,990	136,035	132,932	129,754
교육대학원 학생 수	57,684	56,795	54,108	52,306	45,376	42,604	40,511
비율	39.6%	38.6%	37.5%	36.3%	33.4%	32.0%	31.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다. 특수대학원 교육계열학과 현황

특수대학원 교육계열학과는 교사와 교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일반과 교과교육 원리의 교수 및 연구에 종사할 학자를 배출함을 목표로 하며, 교육일반,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분야로 분류된다(한국교육개발원, 2017). 특수대학원 교육계열학과를 2005년 이후부터 살펴보면, 전체학과 수 대비 교육계열학과 비율은 2005년 32.9%에서 2009년까지 36.2% 상승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30.4%로 나타났다. 전체 입학정원 대비 교육계열입학정원 비율도 2005년 32.5%에서 2017년 26.6%로 감소하였고, 전체학생 수 대비 교육계열 학생 비율도 39.9%에서 31.0%로 감소하였다. 이런 감소현상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력과 책무성을 높이고 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과잉 양성되어 있는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한 교원양성기관평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교육계열학과 수, 입학정원, 학생 수는 전체 특수대학원 대비 약 30% 내외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직업인과 성인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 수요와 교육전문인 양성을 위한 개인적·사회적 요구가 높아 교육계열학과가 다른 계열학과보다 학과 수, 입학정원, 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II-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계열 학과 수나 학생 수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장 협의회나 학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수대학원 교육계열학과 현황은 다음 <표 II-12>와 같다.

<표 II-12> 특수대학원 교육계열학과 현황

(단위: 명/%)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전체학과 수	4,389	4,667	4,686	4,763	4,707	4,561	4,495
교육계열학과 수	1,446	1,656	1,694	1,707	1,547	1,416	1,365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비율	32.9%	35.5%	36.2%	35.8%	32.9%	31.0%	30.4%
전체입학정원	58,289	55,091	54,383	54,623	51,238	51,159	50,867
교육계열입학정원	18,921	8,140	18,252	19,265	14,082	14,689	13,552
비율	32.5%	14.8%	33.6%	35.3%	27.5%	28.7%	26.6%
전체학생 수	145,796	147,275	144,288	143,990	136,035	132,932	129,754
교육계열학생 수	58,123	57,673	54,971	52,822	45,213	42,401	40,259
비율	39.9%	39.2%	38.1%	36.7%	33.2%	31.9%	31.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라.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현황

특수대학원 명칭 중에 ‘교육’이 포함되어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교육대학원, 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사회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유아교육대학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교육정보국방대학원, 교육정보대학원, 국악교육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교육관련 특수대학원들의 목적은 대부분 ‘교육대학원’과 유사하다.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수는 2005년 141개, 18.2%에서 2017년 135개, 16.6%로 각각 6개, 2.3% 감소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입학정원과 학생 수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수 비율은 2017년에 16.6%였지만, 입학정원 및 학생비율은 각각 31.4%와 32.8%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관련 특수대학원이 다른 특수대학원에 비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현황은 다음 <표 II-13>과 같다.

<표 II-13>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현황

(단위: 개/명/%)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전체 특수대학원 수	776	740	759	783	802	813	814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수	141	140	140	143	138	134	135
비율	18.2%	18.9%	18.4%	18.3%	17.2%	16.5%	16.6%
전체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58,289	55,091	54,383	54,623	51,238	51,159	50,867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21,118	20,847	20,753	20,484	16,881	16,492	15,983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비율	36.2%	37.8%	38.2%	37.5%	32.9%	32.2%	31.4%
전체 특수대학원 학생 수	145,796	147,275	144,288	143,990	136,035	132,932	129,754
교육관련 특수대학원 학생 수	59,546	58,792	55,987	54,414	47,418	44,810	42,604
비율	40.8%	39.9%	38.8%	37.8%	34.9%	33.7%	32.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5.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현황

가. 교육행정전공 운영 현황

교육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행정전공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에 교육대학원 개설 수 58개, 교육행정전공 설치 수 44개, 교육대학원 수 대비 교육행정전공 설치 비율은 75.9%였다. 2005년에는 교육대학원 119개, 교육행정전공 설치 수 94개, 설치 비율 79%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116개 교육대학원에 52개 교육행정 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율은 44.8%이다. 2005년과 비교하여 지난 12년 사이에 42개 대학에서 교육행정 전공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공 명칭의 변경이나 다른 전공과의 통합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대학원에 교육행정 전공이 없어진 대학이 늘고 있음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 참고로 교육부(2017) 교원양성기관현황 자료를 보면,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세종대, 울산대, 인천대, 충남대, 한국교통대 9개 대학에서는 교육행정과 유사한 교육공학·교육행정융합전공, 교육리더십 및 교육공학전공,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전공, 교육행정 및 정책전공, 교육행정 및 다문화교육 등과 같은 명칭으로 전공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주로 교육리더십, 교육정책, 고등교육 등 같은 명칭과 통합한 대학이 많지만, 다문화교육이나 교육공학과 통합한 대학도 있다. 이들 9개 대학을 합하면 2017년 현재 교육행정이나 유사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수는 총 61개이다. 특히 2005년 교원승진가산점 제도의 변경으로 1개의 석사학위만 승진가산점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교육행정 전공 진학자가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전공 운영 현황은 다음 <표 II-14>와 같다.

<표 II-14> 교육행정전공 운영 현황

(단위: 개/%)

연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교육대학원 개설 수	58	108	119	118	120	116
교육행정전공 설치 수	44	82	94	89	62	52
비율(%)	75.9	75.9	79.0	75.4	51.7	44.8

※출처: 2010년까지는 김병찬(2015), 2015년과 2017년은 교육부 교원양성기관현황(2017)

※주: 2015년과 2017년은 교육대학교 '교육행정' 수(유사 포함)와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수를 합한 것임.

나. 대학 유형별 교육행정전공 운영 현황

대학 유형별로 교육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행정전공 현황을 201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대학 44개(84.6%), 교육대학 8개(15.4%)이다. 설립별로 국립은 24개(46.2%), 사립은 28개(53.8%)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행정전공과 유사 명칭을 사용한 9개를 합하면 교육행정전공은 총 61개 이다. 2017년 대학 유형별 교육행정전공 현황은 다음 <표 II-15>와 같다.

<표 II-15> 2017년 대학 유형별 교육행정전공 운영 현황

(단위: 개/비율)

대학유형	설립유형	전공명	교육행정전공 수(비율)	비고
일반대학	국립	교육행정	16(30.8)	
	사립	교육행정	28(53.8)	
교육대학	국립	초등교육행정	8(15.4)	청주교대 학교경영전공 포함
합계			52(100)	

※출처: 교육부 교원양성기관현황(2017)

Ⅲ.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1.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실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수대학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이 Stufflebeam(1971)이 주장한 CIPP 모형이나 일반적인 체제모형의 관점에서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수대학원의 일반적인 교육현실, 대표적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의 교육현실, 교육대학원 전공 중에서는 교육행정학회의 관심사인 교육행정 전공의 교육현실로 나누어 교육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지선 외 2인(2009)이 CIPP 모형을 활용하여 특수대학원 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특수대학원의 환경요인(contexts)으로 평생직업의 시대와 work to school, 고학력화와 대학원 수준의 평생직업교육, 느슨한 특수대학원 학과 설립 기준과 평가체제가 특수대학원이나 전공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투입요인으로는 설립절차가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학부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 입학절차는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과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갈수록 입학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특별전형이나 면접위주의 정성적인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입학동기는 학위취득, 직무능력 향상, 교수와 동료들과의 인맥형성 등 다양하며, 수도권에서는 대학의 명성이 대학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나 비수도권은 접근 용이성과 전공의 특성화여부가 중요한 대학원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휴학율(16.1%)과 중도탈락률(6.5%)이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이석열 외, 2015).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휴학율과 중도탈락률도 높다는 점은 특수대학원 교육여건의 열악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특수대학원생의 성적분포 현황을 보면, A학점 이상이 96.4%로, 일반대학원 87.8%, 전문대학원 85.4%에 비해 매우 후한 편이다(이석열 외, 2015). 특수대학원의 재정수입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며, 독립채산제가 아닌 대학본부의 중앙관리체제로 등록금 수입의 70%는 본부에 납입하고 학생정원을 충족하면 30% 정도가 대학원 자율운영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른 2017년 등록금 현황을 보면 전문대학원(667만원), 일반대학원(485만원), 특수대학원(445만원)의 순이다. 그러나 과거에 등록금 인상률은 특수대학원이 제일 높았다(중앙일보, 2014년 3월 20일자). 특수대학원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11.9%로 일반대학원 26.1%, 전문대학원 17.4%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이석열, 2015).

과정요인을 보면, 우선 교육과정개발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체나 현장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의내용만을 소폭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고, 일반대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대학교육이 산업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84.3%에 이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한국산업기술재단, 2006)와 기술발전, 자동화 등으로 고학력 인력수요 증가 및 고용구조 양극화 등 인력수급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것(고용노동부, 2017)은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부분의 특수대학원에 전임교수가 없으며, 학부나 일반대학원 교수진이 주로 야간이나 계절제 형태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전임교원장의 비율은 60%내외로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특수대학원 강의담당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현장 및 실무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시설이나 연구여건 또한 매우 열악하다. 대개는 학부와 교육 및 연구시설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야간에 운영되는 관계로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편이다.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대학원은 재교육과 양성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편입제도, 타대학 학점인정, 타전공과의 학점교류도 미약한 편이다. 주중 2~3일의 야간수업이나 주말수업의 형태로 운영되며, 사이버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산출요인으로 우선 졸업논문은 학교마다 다르며, 논문작성이 의무적인 대학도 있지만, 최근에는 논문대체이수과목 수강과 현장보고서 등으로 대체하는 무논문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논문작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질 관리의 문제와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논문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특수대학원 졸업자들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논문 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박사과정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많으나, 진학자는 전체적으로 19.5% 정도 된다. 서울소재 대학은 15.6% 정도 진학하나, 지방소재 대학은 특수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이 24.7% 정도로 많다(송창용, 2013). 특수대학원의 학생들은 재직자가 많은 관계로 취업지도는 거의 없는 형편이며, 특수대학원 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 교사들을 제외하고 학위취득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경우가 많으며, 특수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지원은 거의 없다. 다만 특수대학원 중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정원감축 등에 반영되고 있다.

다음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현실을 논의하고자 한다.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대학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창남 외, 2017). 교육대학원은 특수대학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원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특수대학원과 많은 점에서 교육현실을 공유하지만, 교육대학원 특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또한다. 따라서 교육대학원의 교육현황을 따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학원의 평가지표별 순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교육대학원의 평가지표별 순위

영역	평가항목	지표명(단위)	교육대학원 (양성)순위	교육대학원 (재교육)순위	비고	
교육 여건 영역	발전계획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정성)	4위	5위	일반대학 교직과정 제외	
	교원	전공과목전임교원확보율(%)	4위	5위	일반대학 교직과정 제외	
		전공과목전임교원확보율(정성) (-3.5까지 감점 가능)	동률 1위	동률 1위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교 제외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3위	-	교육대학교 제외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2위	-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시간강사의 강사료 수준(원)	3위	5위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율(%)	5위	6위		
		강의만족도(%)	5위	6위		
	행·재정	교직담당직원의 확보율 및 활동의 적절성(%)	2위	-	교육대학교와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교직담당직원의 확보율 및 활동의 적절성(정성)	동률 1위	-	교육대학교와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교육비(장학금 등)환원율(%)	4위	5위	일반대학원 교육과 제외	
	교육 과정 영역	교육과정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정성)	3위	-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현장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실적(정성)	4위	동률 5위	
수업의 충실성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공일치 수업 학점비율(%)	4위	-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일치 수업 학점비율(%)	1위	-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전공개설과목 교수자 전공일치 수업 학점비율(%)	-	1위	교육대학원(재교육)만 해당	
		강좌당 학생수(명)	2위	1위		
		수업의 질 관리(정성)	동률 3위	6위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지도활동 실적(정성)	3위 (교대 제외)	-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영역	평가항목	지표명(단위)	교육대학원 (양성)순위	교육대학원 (재교육)순위	비고
성과 영역	경영성과	중도탈락 학생 비율(%)	2위	1위	
		신입생 충원율(%)	5위	6위	
	교육성과	예비교사 수업수행능력(정성)	2위 (교대 제외)	-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교원임용율(%)	4위	-	교육대학원(재교육) 제외
	재학생 만족도(정성)	4위	3위		
특성화 영역	교육 기관별 특성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의 업정정(%)	1위	2위	교육대학교와 교육대학 원(재교육)만 해당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의 업정성(정성)	1위	2위	교육대학교와 교육대학 원(재교육)만 해당

※출처: 홍창남 외. (2017), 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를 수정하여 작성함

※주: 분석 대상 중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교를 제외하여 제시하고 순위는 분석대상 총 6개 중 순위임.

일반적으로 교원양성기관으로서 교육대학원의 평가지표는 교육여건, 교육과정영역, 성과영역, 특성화영역 4가지이다. 교원양성기관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양성), 교육대학원(재교육)의 6개이다.

교육대학원(양성)은 정량지표에서는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2위), 교직담당 직원의 확보율 및 활동의 적절성(2위),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일치 수업학점 비율(1위), 강좌당 학생 수(2위)에서만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전공과목 전임교원확보율(4위),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3위),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5위), 교원임용률(4위)에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정성지표에서도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의 경우 우선 정량지표와 관련해서는 강좌당 학생 수(1위)와 교육대학원 재교육 과정에만 적용된 전공개설과목 교수자 전공일치 수업학점 비율(1위)을 제외하고는 적용된 모든 정량지표에서 다른 양성기관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정성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5위), 현장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실적(5위), 수업의 질 관리(6위)에서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점수가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특히 교육여건 영역의 교육비(장학금등) 환원률을 보면 교육대학원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비 환원률 지표(배점은 교육대학교는 40점, 그 외 양성기관은 30점임)는 직접교육비 총액을 등록금 총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평

가한 결과, 교육대학교의 교육비 환원률(238.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범대학(177.2%) 일반대학 교육(123.4%), 교육대학원 양성과정(97.8%), 및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86.4%)순이었다.

총괄적으로 2016년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를 4가지 지표별로 보면(허주, 2017), 우선 양성과정별 평균 점수는 교육대학원(양성) 643.7점, 교육대학원(재교육) 577.8점으로 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 교육과에 비해 크게 뒤지는 편이며, 일반대학 교직과정보다는 교육대학원(양성)이 높은 편이다. 교육여건 영역에서는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교육대학원(양성),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재교육) 순이다. 교육과정 영역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교육대학원(양성), 교육대학원(재교육), 일반대학 교직과정 순이다. 성과영역은 일반대학 교육과, 교육대학원(재교육),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양성), 일반대학 교직과정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영역은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양성), 교육대학원(재교육)순이었다.

한편, 교육행정 전공의 교육현실을 김병찬(2015)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입요인인 입학생은 63%가 교사들이며, 일반대학의 경우에도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들이 혼재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직행정직원이 24%, 교육전문직이 3%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기관종사자나 일반회사원, 전일제 학생 등 입학생의 특성이 다양한 편이다. 교수자원으로 평균 2명 내외의 전임교수가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겸임·초빙교수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도 있다. 전공교수가 한명도 없는 교육대학원도 있다. 과정요인으로 교육목적은 포괄적, 추상적, 이론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교육과정도 백화점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문분야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보였다. 실제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설립목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목 명칭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교육재정이 교육재정연구로 바뀌는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동일한 과목으로 설강하는 사례도 많다. 논문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정한 20개 교육대학원 중에서 8개 대학원은 논문을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12개 대학원은 무논문학위제를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김병찬, 2015). 최근에는 무논문제도가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출요인인 석사논문 배출은 무논문학위제가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대학원 입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고 교육행정을 전공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안목을 길러주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실무능력 향상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다고 지적하였다(최원아, 2002). 환류측면에서는 환류기제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교원승진·가산점 제도 변화와 대학원 진학자의 감소,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육행정 전공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의 변화에 따라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김병찬(2015)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난

과선에 비유하고 있다.

2. 특수대학원 운영의 문제점

가. 정체성 및 특성화 미흡

특수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목적과 실제 기능이 일치하지 않아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박부권, 2007; 박선형, 2016; 송창용 외, 2013; 이석열, 2007; 정지선 외, 2009). 또한, 특수대학원의 비전이나 목적이 명확히 수립되지 않아 내실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권대봉, 2004). 교육목적에 따라 대학원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특수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이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송창용, 2013). 교육목적만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 운영은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목적과 기능이 중첩되고, 크게 다르지 않음을 규정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형관 외, 2005).

대학원의 학위는 학술편위와 전문학위로 구분되며,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편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6조), 실제 이 구분은 유명무실하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학원의 박사과정 입학자격으로 일반대학원의 석사 학술편위만을 요구하거나 특수대학원의 석사 전문학위를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박부권, 2007). 법률에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학술편위와 전문학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교육대학교와 같이 대학의 설립목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혼재되어 있어 더욱 정체성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교육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이 특수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된 이유도 대학원의 성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대학원의 종류만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특수대학원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직업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정지선 외, 2009). 특수대학원 입학 희망자는 주로 직

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실무 중심으로 재교육을 받기 위한 재직자나 성인들이 대다수이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학문의 이론과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과 매우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이석열, 2007). 직업인과 성인을 위한 내실 있는 실무교육으로 차별성 있는 인력양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위만 남발하고 있어 개선의 요구가 많은 실정이다(송창용, 2013).

특히 교육대학원의 경우, 양성과 재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순수 교육학관련 전공들은 재교육의 성격이 강하여 교직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이 유리하지만, 교과교육학 전공들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생과 현장의 교원들이 동시에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의 정체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면 오히려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현상도 생기기 마련이다.

특수대학원은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경직되고 특성화가 미흡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송창용, 2012; 정지선 외, 2007). 특수대학원에 입학하는 자원은 현직에 종사하는 재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시켜야 하는 학부와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계열별 공급과 수요의 차이를 감안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한 노동수요 변화 상황에 발맞춰 특수대학원이 특화 및 변화되지 않는다면 향후 노동시장과 산업계에서 특수대학원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대학원·학과·정원 등의 증(신)설·조정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대학이 자율 결정하여 학칙에 반영하게 되어 있지만, 정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추진 등을 고려하여 동결 또는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교육부, 2018). 전반적으로 특수대학원의 충원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수요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특수대학원의 본질에 맞는 대책 수립으로 입학생 충원과 정체성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열악한 교육 및 연구여건

특수대학원생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시설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송창용, 2013; 신현석 외, 2016; 정지선 외, 2009). 특수대학원의 설립요건은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 용이하고 교원은 학부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연구 시설 또한 학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특수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시설은 부족하고 도서관, 학사행정 서비스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이시경, 2006). 심지어 학부에 전공이 없고 특수대학원에만 전공이 있다는 이유로 연구실, 세미나실, 컴퓨터실,

학생회실 등과 같은 학생지원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특수대학원 행정직원 및 조교는 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 특수대학원 학생들이 학사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대학원 유형별 평균 등록금과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대학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14%로 일반대학원 26%와 전문대학원 18%보다 낮다. 특수대학원 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주로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높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등 학생지원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특수대학원이 본연의 목적보다는 대학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라는 불명예를 면하기 어렵다(이석열, 2007; 정지선 외, 2009). 2017년 대학원 유형별 등록금 및 1인당 장학금 현황은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2017년 대학원 유형별 등록금 및 1인당 장학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등록금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비율
일반대학원	4,208.49	1,074.42	26%
전문대학원	5,953.00	1,052.36	18%
특수대학원	3,767.00	538.81	14%
평균	4,642.83	888.53	19%

※출처: 대학알리미

※주: 등록금(입학금 제외)과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한 학기 평균 기준임.

또한, <표 II-6>에서 2017년 특수대학원 계열별 학생 현황을 보면 인문·사회·교육계열이 78%를 차지하고 있고 공학·자연·의약·예체능계열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당국은 실험실과 실험기자재 등 실험실습비 등 교육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공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인문 사회계열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중요한 교육여건인 유형별 대학원 학생 수 및 교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수 대비 일반대학원 학생 비율은 46.7%, 특수대학원 39.7%, 전문대학원 13.6% 순이고, 전체 교원 대비 전문대학원 교원 비율은 65.0%, 일반대학원 22.7%, 특수대학원 12.3% 순이다. 특수대학원 학생 비율은 39.7%나 되지만, 교원 비율은 12.3%에 불과해서 특수대학원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보여준다. 결국 특수대학원 소속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교원은

학부와 연계가 가능하고 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확보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7년 유형별 대학원 학생 수 및 교원 수 현황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2017년 유형별 대학원 학생 수 및 교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학생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일반대학원	152,326	46.7%	1,826	22.7%
전문대학원	44,235	13.6%	5,216	65.0%
특수대학원	129,754	39.7%	985	12.3%
합계	326,315	100%	8,027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또한 대학원 유형별 전임교원 강의담당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0.17%이며, 대학원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대학원 개설학점 대비 전임교원 담당학점 비율을 보면 81.67%이고 전문대학원은 71.91%인 반면, 특수대학원은 56.92%로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보다 무려 24.75%가 낮다. 특수대학원 수업은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야간 수업이나 계절학기 수업에 대한 보상체제가 미흡하여 전임교원들이 수업 맡기를 꺼려(정지선 외, 2009) 질 낮은 외부 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이 높고 있음은 큰 문제이다. 실제 2011년 특수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60.2%인(송창용, 2013) 것과 비교해도 몇 년 사이에 3.3% 줄어든 점은 갈수록 특수대학원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유형별 전임교원 강의담당 현황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대학원 유형별 전임교원 강의담당 현황(2018학년도 1학기)

(단위: 점/%)

구분	개설학점	전임교원 담당학점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일반대학원	134,445	111,285	81.67%
전문대학원	20,318	14,610	71.91%
특수대학원	60,037	34,169	56.92%
평균	71,600	53,355	70.17%

※출처: 대학알리미

다. 느슨한 학사관리

특수대학원은 학부와 다른 대학원에 비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강지도, 시험 및 성적부여, 강의실, 수업시간, 출석과 결석 관리, 학위수여의 적정성 등 학사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석열, 2015; 정지선, 2009). 이에 교육부(2015)는 대학원 교육·연구 질 제고를 위해 해당학교 학칙 등을 통해 규정된 학사관리 절차와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부실 학사운영 사례 적발 시, 학위취소,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학사관리 운영에 대해 출석과 결석 관리, 학점부여, 수업시간, 수업장소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했고 본교와 분교는 별개의 학교이므로 각각의 정원을 분리함을 기본으로 하였다.

유직자의 경우 퇴근이 늦고 출장 등의 사유로 정시에 맞춰 등교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학생과 교수 간의 목시적 타협으로 출석과 결석 관리, 단축수업, 평가방법 등에 있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강의자의 예고 없는 휴강과 교수진 교체, 학점 인플레이, 종합시험의 간소화 등 적당주의식 운영이 만연해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권대봉, 2004).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과 쉽게 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원의 욕구가 서로 일치하여 가능한 일이다. 특수대학원의 진학 목적인 직업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무 중심의 재교육 보다는 부수적 목적인 석사학위 취득에만 관심을 갖는 형국이다.

학위논문 작성 및 관리와 절차도 체계적이지 않다. 논문자격시험인 외국어시험이나 종합시험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지도교수의 지도 및 관리와 행정직원 및 조교 등의 지원하에 작성하는 학위논문 대신에 추가 학점 취득이나 보고서 등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무논문학위제 대학이 늘면서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당한 인근대학들마저 무논문학위제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논문지도에 어려움도 있고 부실논문 등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대학에서 무논문학위제를 선호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연구보고서나 논문작성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아 논문표절과 대필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수대학원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대학원 학위에 대한 공신력과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학위논문 대신 작품발표회 등으로 학위를 수여할 때도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특혜성 학위가 수여되어 대학원 학사관리의 질 관리 및 책무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대학의 학사관리를 위한 대학정보공시제, 대학 평가인증제도는 주로 학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특수대학원은 상대적으로 학사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송창용, 2013).

김지영(2017)은 특수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은 세분화되지 않은 커리큘럼, 학습자의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전공수업, 교수자의 자질 미흡 등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사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해결될 문제이다. 학부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취득을 관리하는 맞춤형 학사 관리 시스템 등으로 수강신청 및 학업계획에 활용하고 자기학점을 관리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학문간 융합형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공 및 대학원 간의 학점교류도 허용하지 않는 등의 경직된 학사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부실한 질 관리 체계

특수대학원은 양적인 팽창에 비해 교육의 질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선형, 2016; 송창용, 2013; 이석열, 2004). 교육 운영과 학사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특수대학원의 위상에 걸 맞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없는 실정이다. 특수대학원의 급속한 양적 성장은 국내 박사학위자의 질적 수준의 문제로 확대되어 논의되기도 한다(박선형, 2016). 특수대학원만의 교육의 질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석열 등(2015)은 법학·경영 등 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시행의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만, 다른 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부의 법적 평가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대학원 평가 기본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대학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책무성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대학원은 주기적인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그나마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특수대학원이다. 평가주기가 짧고 평가 지표가 많아,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평가결과가 양성기관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등의 부담 때문에 대학들마다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 특수대학원은 전문학위인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일반적인 학위 수여 조건은 24학점 이상 취득,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 학위논문 제출이다. 대학들은 스스로 학위 논문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제한, 일정수준 이상의 소논문 제출 등 내실 있는 논문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학칙규정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

해서 많은 특수대학원에서 학점 추가 취득, 시험, 연구보고서 등으로 학위논문 제출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석열, 2015).

학위 논문의 질 제고는 특수대학원에서 수확한 교육 내용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특수대학원의 목적에 맞게 실무 및 현장 중심적인 직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험이 학위논문의 대체수단이라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 유치를 위해 손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특수대학원 학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며 스스로 학위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IV. 특수대학원 발전방향

1. 정부와 대학의 인식의 변화

2016년 세계경제포럼 미래직업보고서에서 기업은 종사자의 지속적인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습득 및 역량개발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인지하고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현재 고용 인력의 역량개발'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교육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인력의 지속적 재교육 및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유연성 있는 직무역량 강화 체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가올 미래에는 직업인의 재교육으로 고급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직업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과 효과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특수대학원의 정원 정책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대학에 제공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지원·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삼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특수대학원의 열악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여건은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특수대학원 학생이 재직자이기 때문에 장학금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지만, 교육비 환원률이 다른 유형의 대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대학원 학생에게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work-to-school(일학습병행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간 특수대학원은 대학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저투자 고효율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응당 받아야 할 재정지원에서도 제외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특

수대학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투입과 산출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해서 독립채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수대학원의 예산 배분구조는 보통 대학본부에서 단과대학으로, 다시 전공학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에 특수대학원이 행·재정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재정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수대학원이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것도 특수대학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학생 수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이 산업인력수급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또한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고용노동부, 2017). 또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으로 많은 대학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특수대학원도 예외가 아니다. 특수대학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특수대학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조만간 많은 대학들에게 특수대학원의 존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2. 특수대학원의 정체성 강화

우리나라의 세 가지 대학원 유형은 법령상 엄격하게 지향하는 목적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사이에 낀, 말 그대로 특별한 대학원으로 일반대학원 보다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크게 뒤지며, 전문대학원에 비해서는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앞서지 못한 채 양적 팽창을 거듭해 오면서 대학에는 주 수입원인 효자 역할만을 수행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설립도 용이하고 운영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매우 효율적인 대학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학부의 학생모집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처럼 대학원, 특히 특수대학원도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입학정원도 줄고 학생 충원률도 점차 하향세가 뚜렷하다. 특수대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수대학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수대학원은 성인과 재직자의 재교육과 계속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화 사회에서 고학력자의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work-to-school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수업방법, 교수자의 자원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 구분되는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현장과 연계된 실무 위주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 산업계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원에서 배운 이론과 실천지식 및 기술을 실천할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전문가와의 팀티칭, 현장실습, 프로젝트 기반학습, 문제중심학습,

세미나 등과 같은 재훈련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성인 학생들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전임교수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가들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강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성기능과 재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의 기능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 교실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통해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성과 재교육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학원은 재교육 기능 위주로 운영하고 양성기능이 필요하다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연합하여 필요한 자원을 공동으로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이 주는 상황에서는 대학간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체제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들도 다양화와 특성화를 꾀하여 난립을 방지하고 특수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수대학원은 타 대학원과의 차별화된 교육의 비전을 설정하고 목적과 기능을 재구축하여 국가사회적 인력수요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조 조정 및 조직 개편을 수시로 해야 한다.

3. 엄격한 학사관리

엄격한 학사관리는 특수대학원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학위남발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다. 학사관리는 학생행정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의 모든 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사관리의 중요 요소는 입학, 수업 및 운영지원, 학위논문지도이다. 특수대학원은 재교육 기능을 강조하는 만큼, 학부성적이나 필기시험위주의 일반전형보다는 면접과 실무경험 위주의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학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형의 의미가 퇴색하긴 했지만, 대학원의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대학원의 학생들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가 대부분인 만큼, 야간이나 주말 및 방학 중에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잦은 휴강이나 단축수업 등은 학생들의 불만사항이고, 대학원의 공신력과 직결되는 만큼, 수업시간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수업연한의 연장이나 교육시간 조정과 같은 개인 맞춤형 학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제도가 시간제 학생등록제와 학점은행제이다. 시간제 학생등록제도는 대학에 정식입학하지 않은 산업체 근로자 등 사회인들도 대학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학

접은행계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대학원교육을 개방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이 부담없이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직업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사용에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야간이나 주말에도 개방을 해주어야 하며, 행정인력의 지원도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

학위논문의 내실화와 자율화 대책이 필요하다. 특수대학원 졸업자는 석사학위를 받는다. 학위논문은 석사학위 취득에 필수불가결인 요건이기는 하지만,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 즉 추가적인 학점취득과 현장보고서 제출 등의 의해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대부분의 특수대학원에서 무논문제를 채택하고 있다. 특수대학원의 성격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연구윤리의 문제로 특수대학원 논문이 사회적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졸업논문 지도는 엄격하게 시행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교육대학교에 설립된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을 졸업해도 똑같이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학위명만 보면 어떤 종류의 대학원 출신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와 실무학위를 줄 수 있도록 구분하고, 전문학위와 실무학위의 요건을 달리하고(예컨대, 무논문제도등),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을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실제 특수대학원 졸업자의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자가 지방소재 대학의 경우 25%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질 통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4. 대학원의 질 관리 체제 확립

대학원이 팽창하기 시작한 지난 1980년을 기준으로 특수대학원은 학교 수나 학생 수에 있어서 약 10배 이상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최근 대학원 입학 수요가 감소하여 대학이나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특수대학원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이 학사제도 개선 및 학생지도 내실화와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평가 체계는 특수대학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는 객관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대학원 자체의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가 대학원 유형별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대학원평가의 목적은 구조조정이나 정원감축보다는 특수대학원의 역할과 기능회복에 두어

야 한다. 즉 특수대학원이 본연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도록 지원하고 대학원과 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얻는데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이석열, 2015), 더 나아가 현장 실무중심의 직업인 및 성인 교육을 위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학의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하여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학원평가체제를 도입하여 대학원교육에 대한 축소지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8). 특수대학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수대학원 교육은 각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과 재직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평가체제가 갖추어야 할 내용으로는 우선, 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연구윤리를 포함한 학위논문작성 관련 내용, 대학원의 설립요건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학부에 준하는 대학원정보공시 체계 구축으로 대학 스스로 반성적인 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특수대학원도 전문대학원 처럼 평가인증을 통해 대학원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 간 및 대학 내 특수대학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수대학원 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학점 교류 및 상호인정, 공동학위제 등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V. 결론

특수대학원은 1959년 최초로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대학원 발전을 이끈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대학원이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의 유형으로 구분되기 전까지는 대학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의 대학원 수요가 급증하고 대학원 신설이 비교적 용이해지면서 특수대학원의 양적인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에 버금가는 질적인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수대학원 입학자원도 감소하고 휴학이나 중도탈락으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이 늘면서 특수대학원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의 교육현실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특수대학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특수대학원 교육현실과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특수대학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지만, 대표적인 특수대학원이 교육대학원과 교육행정 전공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논의하였다.

특수대학원은 설립목적, 교육내용, 수업형태, 수업연한, 학위논문작성, 설립요건 등 많은 점에서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동소

이하게 운영한 것이 사실이다. 대학원 수에 있어서는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수에 있어서는 39.8%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석사과정 학생의 거의 절반은 특수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814개의 특수대학원에 129,754명의 대학원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중 교육계열과 사회계열 학생이 제일 많다. 특수대학원 중에서 교육대학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이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31.2%이며, 이중 교육계열 학생 수가 31%이다. 2017년 현재 전국 116개의 교육대학원에 교육행정 전공은 52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며, 유사전공까지 포함하면 61개 대학에 교육행정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특수대학원의 교육현실은 투입, 과정, 산출의 측면 모두에서 대학원 수준에 걸 맞는 교육과 연구를 하기에는 부실한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수대학원 교육력을 담보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대학원 역시 몇 가지 지표는 타 교원양성기관에 비해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재교육 기능도 몇 개를 제외하고는 양성과정에 못 미치는 수준에 있다. 교육행정 전공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수대학원 운영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우선 특수대학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정체성 및 특성화가 미흡하고, 교육 및 연구 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학사관리가 느슨하고 질 관리 체제도 부실하여 사회적 공신력이 많이 실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으로 먼저, 정부의 대학의 특수대학원에 대한 인식변화를 지적하였다. 미래에 대비하여 직업교육의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과 효과적인 인력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특수대학원의 역할을 인식하고 정원정책이나 재정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하며, 대학도 특수대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응분의 재정지원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독립채산제와 같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수대학원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을 따라가는 대학원이 아니라, 고유의 특성을 지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성인에 맞는 수업방법으로 자질있는 교수자들이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수대학원의 공신력 회복을 위해 엄정한 학사관리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주로 현업에 종사하는 재직자인 만큼 꼭 배울 것을 제대로 배워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가 엄격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수대학원에 특성에 맞는 학위논문의 내실화 및 자율화도 필요하다. 전문대학원과 다른 실무학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자율적인 개선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최소한 학부 수준의 정보공시체제, 특수대학원 간 협력체제, 장기적으로는 전문대학원처럼 평가인증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7).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
- 고전. (2009).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의 검토와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345-364.
- 교육부. (2014). 2014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
- 교육부. (2017). 2017년 교원양성기관현황
- 교육부. (2017). 2018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안).
- 권대봉. (2004). 특수대학원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대학교육**. 130. 29-39.
- 김병찬. (2015).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3(1). 25-54.
- 김지영, 장원섭. (2017). 특수대학원에 재학하는 직장인의 학습체계와 모순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사회**. 13(4). 1-23.
- 김형관, 이석열, 손희권, 신봉섭, 이은구, 김겸훈, 노명순. (2005). 전문대학원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1). 375-396.
- 노동관. (2017). 4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 산은조사월보. 제738호. 31-48
- 박부권, 김낙년, 정성창, 진민석. (2007). 대학원 학위 질 제고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Issue Paper. (정책연구개발사업 2007-위탁-10). 교육인적자원부.
- 박선형, 조영하, 서화정. (2016). 대학원 발전 방안 연구. (IP 2015-02).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서혁준, 남태우, 정주용. (2014). 정책의 도입, 표류, 그리고 회귀: 의학전문대학원 사례 연구. **국가정책연구**. 28(1). 187-214.
- 송창용, 정재호, 이은혜, 장용석. (2013). 대학원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핵심과제 설정 연구. (수탁연구 CR 2013-36).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창용. (2012). 대학원의 교육 연구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과제 2012-08). 교육과학기술부.
- 송창용, 이은혜. (2013). 대학원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학위제도 개선방안. (기본연구 2013-4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현석, 반상진, 안선희, 이석열, 박갑동, 이영학, 이호섭. (2016).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진단 시스템 시범운영. (발간번호 11-1342000-000142-01). 교육부.
- 이석열, 신현석, 반상진, 안선희, 이영학, 이호섭. (2015).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발간번호 11-1342000-000137-01). 교육부.
- 이석열. (2007). 특수대학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인문학연구**. 34(2). 373-397.
- 이시경. (2006). 특수대학원의 운영개선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 25(1). 235-251.
- 정일화, 천세영. (2017). 교육전문대학원 교원양성체제의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149-173.

- 정지선, 이남철, 이기성. (2009). 고등직업교육을 위한 특수대학원 개선방안 연구. (정책 연구 2009-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중앙일보.(2014. 3.20). '신입생 데려오면 장학금 줄게'...질 떨어지는 특수대학원. <https://news.joins.com/article/14205559>에서 2018. 8.27 인출
- 최원아. (2002).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허은정, 김기수, 이강주, 이동엽, 문보은. (2016). 4주기 2015년 교원양성기관평가 보고서. (기술보고 TR 2016-21). 한국교육개발원.
- 허주, 허은정. (2016). 2016년 4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보고서. (기술보고 TR 2017-10). 한국교육개발원.
- 홍창남, 김민희, 김왕준, 김현진, 이동협, 이해선. (2017). 5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 개선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2017-27). 한국교육개발원.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대학알리미 <http://academyinfo.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토론 1

특수대학원의 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

유현숙(고려대학교)

특수대학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에 감사드린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제시한 특수대학원의 발전 방향, 1) 정부와 대학의 인식변화, 2) 특수대학원의 정체성 강화, 3) 엄격한 학사관리, 4) 질 관리 체제 확립에 크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가로 강조하고자 함.

○ 인식변화만으로 부족하고 제도가 수반되어야

- 발표자는 특수대학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인식변화를 첫 번째 발전방향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행경험을 통해 볼 때 인식전환만으로는 혁신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대학원이 당면한 문제점은 이미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특수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대학차원에서는 독립채산제, 책임경영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책임경영제의 정착은 특수대학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됨을 의미한다. 독립채산제나 책임경영제 도입은 전임교원의 확보,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수반되어 특수대학원 교육 경쟁력 전반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문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역할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이다. 우리는 지금 학부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구조개혁과 혁신을 비교적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원 교육을 정책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곧 시행예정인 정부의 대학원 평가는 이미 수년전 실시를 구상한 바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었다).

- 특수 대학원에 대한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 지원, 촉진을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 대안들이 대학원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 특수대학원 발전 방향은 체제내적 요인과 환경요인을 같이 고려해야

- 체제 내적인 문제란 발표원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특수대학원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모든 대학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특수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교육이 갖고 있는 일반적 문제와 아울러 체제 외적 변화요인 즉, 저출산 고령화 및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 산업 및 직종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변화, 다문화 유입 등의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장기적 전망에서 볼 때 특수대학원의 입학자원도 감소시킬 것이다. (발표자료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대학원의 충원률은 최근 미세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 특수대학원의 목적은 성인과 재직자의 재교육과 계속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성인들의 계속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과 사설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학원은 이들 기관과 경합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재교육 역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직종 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않는 관행적 교육과정 및 전공계열 운영 등은 특수대학원의 앞날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

- 특수대학원의 본질적 기능이 성인의 계속 교육에 있다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습자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평생학습 사회에서 성인의 계속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관이 대학만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요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오늘날 글로벌 추세는 대학원의 기능이 학자의 양성이나 성인계속교육, 현직 연수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학위 이후 노동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양성의 기능도 강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석사학위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특수대학원의 경우 인력양성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교육대학원의 경우도 교직과정 제공을 통해 교사양성 기능도 담당하는 등).

- 특수대학원은 이러한 양자 기능 즉, 현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재교육 및 연수이거나,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인력양성 기능 수행을 위해서이거나 모두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특수대학원의 실무역량 중시는 입학허가 과정에서부터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예컨대 미국의 EDD 과정은 입학전에 교육기관, 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입학하기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음)

○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이 중요

- 특수대학원 교육에 대한 정보는 대학알리미를 통하여 극히 일부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반대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인 학생들이 대학원을 선택하고, 기업이 대학원 졸업자들의 채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학원 알리미'등을 별도로 운영하여 특수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이 대학의 부속물로 간주되지 않고, 독자적인 운영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원 개선정책도 담론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Data-based)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오랫동안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 '연구중심대학'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연구중심 대학의 조건이나 기준은 없는 실정임. 연구중심 대학은 대학원중심 대학과 유사한 맥락에서 논의되어 온 바, 논의를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 실상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함).

- 발표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대학원 질 관리의 일환으로 합리적 평가체제의 마련이 중요하다. 대학원 평가는 대학원의 유형을 고려하여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학원 교육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전제로 평가의 방향은 1) 대학원의 자체역량 진단을 위한 평가, 2) 최소 수준의 대학원 교육 인증을 위한 평가(가칭, 대학원 평가인증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구조개혁과 기본역량진단 사업을 통하여 대학들은 학부교육을 위한 진단 역량은 어느 정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학원 교육역량 자체 진단 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학원 자체 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예컨대, 특수대학원 혁신사업 지원, 선도적 특수대학원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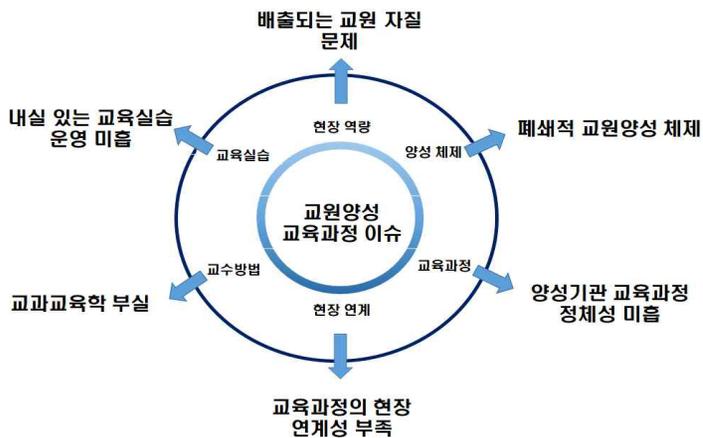
토론 2

**무늬만 '특수' 한 대학원에서 진정한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김갑성(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발표자께서 준비하신 원고는 특수대학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연륜에서 우리나라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제시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수대학원의 과거에 대한 검토, 현재에 대한 반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이 담긴 원고를 읽으며 계절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 토론자는 교육대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짐과 동시에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교육대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생각과 반성은 다음의 그림이 생각났다. 이 그림은 토론자가 한국교육개발원 재직 당시 2009년에 『교원양성 교육과정 실태 분석』¹⁾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이슈 또는 문제를 기존 관련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표시된 이슈는 비단 교원양성기관의 문제만이 아님을 발표 원고를 통해 알

1) 교원양성 교육과정 실태 분석의 대상은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이었음.

수 있었다. 특수대학원에서도 교원양성기관이 겪고 있는 문제를 비슷하게 겪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대학원은 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원고의 집필 의도라 판단된다.

발표자께서 쓰신 원고, 특히, 특수대학원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 그러나 발표 원고에서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수대학원 현황 분석에서 자료에 의한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의 분석이 가미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대학원 관련 문제 진단에 발표자의 전문적 의견이 좀 더 많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주제발표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토론자로서 발표자와 약간의 시각을 달리하여 특수대학원, 그중에 교육대학원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자의 주관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다양한 특수대학원 중, 토론자가 경험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 교육대학원은 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나?

첫째, **교사양성 기능과 재교육 기능의 혼재로 인한 정체성 문제이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과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즉, 직업인의 경우,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추가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 일반 성인의 경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추가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특수대학원에 진학해야 하고,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요자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특수대학원의 한 유형인 교육대학원도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대학원은 교사양성 기능과 재교육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1998년 이후 설립된 교육대학원의 경우, 재교육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음). 이 경우는 앞서 살펴본 특수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 계속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교사양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가 부족한 시기에 교육대학원은 교사의 공급 기관으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의 수가 부족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관 설립의 목적과 다른 교육대학원의 교사양성 기능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시점이다. 교육대학원의 정체성은 설립 목적을 잘 지키는 것부터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론 중심 교육과정의 문제이다.** 계속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대학원이라면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적이고 현실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학생들

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대학원에서는 일반대학원과 별 차이 없이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직업인들에게 현장 역량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일반 성인들에게 실제적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론 중심의 다양한 과목을 교육대학원에서 소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현장과 연계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도, 기존의 지식에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도 습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대학원과 차별성 없는 교육과정, 일반대학원 교과목에서 명칭만 조금 바꿔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대학원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교육과정 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한 학생과 현직 교사, 관리자, 일반직행정직원, 교육전문직 등이 뒤섞여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교육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누구에게도 만족스러운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힘든 구조일 수 있다.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집단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되는 교육과정도 검토할 문제이다. 주로 주간에 운영되는 일반대학원과는 달리 야간, 주말 또는 계절제로 운영되는 교육대학원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느슨해질 개연성이 높다. 일을 마치고 수업에 참여하거나, 남들이 다 쉬는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수업을 듣는 경우,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교육대학원 전임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강사의 수업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외에 계절제로 운영되는 교육대학원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는 계절제 교육대학원 수업 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단위학교가 학기 중에 자율적으로 재량휴업일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로 방학 기간이 예전에 비해 단축되고 있거나 단위학교마다 방학 기간이 다르므로 인해 교육대학원이 계절제 수업 기간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대학원생 확보의 어려움으로 번지고 있다.

넷째, **기준에 못 미치는 교육 여건의 문제이다.** 발표자께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교육대학원의 교육 여건은 그리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임 교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전용 강의실이 없는 경우도 많다. 교육대학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인 것이다. 또한 야간, 주말, 계절제로 운영되기에 전임 교원보다는 강사를 활용해 강

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양성기관평가(현재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학부 양성 과정이 우선적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학부 양성 과정에 투입하고, 남는 자원을 교육대학원에 투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부 전임 교원을 우선 확보한 다음 남는 교원을 교육대학원 전임 교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때, 교육대학원 전임 교원으로 산정되는 교원의 경우,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원이 배치되곤 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의 좋지 않은 결과는 대학 차원에서 교육대학원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고, 무관심은 교육대학원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대학의 지원을 또 다시 가로 막는 요인이 된다. 즉, 투입과 결과의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 교육대학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솔직히 토론자가 앞서 언급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육과 경험, 그리고 관련 연구를 통해 나름대로 고민했던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 교육을 강조하여 교육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은 다른 종류의 대학원과의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교육대학원의 존재 의미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 직업인에게는 현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중심의 교육으로, 일반 성인에게는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업데이트 차원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대학원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사 양성 과정의 제한 내지는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대학원의 교사 양성 과정의 제한 또는 폐지가 어렵다면, **교육대학원 세부 전공 하에 교사 양성 트랙과 계속 교육 트랙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문제에서 언급했던 교육과정 내용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트랙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에 앞서 제시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과정, 현장 역량, 현장 연계, 교수 방법, 실습 등의 문제점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대학원의 교사양성 기능을 분리하여 새로이 전문대학원 내 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대학원은 계속 교육의 기능만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에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대학원에서는 직업인과 일반 성인 대상의 계속 교육을 담당하고, 현재 교사양성은 전문대학원 내에 새로운 대학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육대학원 교육의 질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계속 교육을 위한 과정과 상위 학위 취득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정이 아니라 위와 같이 트랙의 개념이어도 상관없다. 현재 교육대학원에서는 학생 수 감소의 해결 방안으로 무논문제 학위 수여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추가 학점을 이수하거나 현장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교육대학원에서 학생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기는 하지만 교육대학원의 교육의 질적 위상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대학원 졸업자 중 상위 학위(박사) 취득 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인 것을 감안할 때, 상위 학위 취득 과정에 입학하더라도 논문을 작성하거나 다양한 글을 서술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계속 교육을 위한 과정과 상위 학위 취득 과정으로 구분하고, 계속 교육이 아닌 상위 학위 취득 과정으로 입학한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논문을 통한 학위 수여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여러 특수대학원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말 그대로 특수한 대학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화’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특수대학원은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 대학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수입원의 오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학 스스로 백화점식 특수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대학의 교육철학과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수의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특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를 교육대학원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성과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에 대해 대학별로 다양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후속 조치는 학부 과정 또는 일반대학원에 집중될 것이고, 교육대학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교육대학원의 현재 모습에서 특수대학원 학생 수 대비 교육대학원 학생 수가 30%

를 넘고 있다. 즉, 특수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대학의 무관심 속에서 교육대학원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가 교육대학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으로 연결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